

文學碩士 學位論文

慶州地域 古墳 出土
短脚高杯에 關한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宋 相 雨

2009年 12月

慶州地域 古墳 出土
短脚高杯에 關한 研究

指 導 教 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宋 相 雨

宋相雨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12月

목 차

I. 머리말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2
II. 단각고배의 범주	6
1. 각부명칭	6
2. 유형의 설정	8
III. 경주지역 고분 출토 단각고배	13
1. 현황	13
2. 분류기준	17
3. 형식분류	26
4. 공반유물	32
IV. 편년 및 단계설정	37
1. 편년	37
2. 단계설정	48
V. 맺음말	51
참고문헌	53
도면	57
부록	61
Abstract	82

<표 목차>

표 1. 6세기 대 유개식 고배의 구분	9
표 2. 6세기 대 대부완 및 무개식 고배의 구분	10
표 3. 묘계별 단각고배 유형의 출토 현황	18
표 4. 대각단 형태와 투창·투공 여부의 속성 조합에 따른 형식분류	25
표 5. 무개식단각고배의 형식별 빈도순서배열표	45
표 6. 유개식 I 단각고배의 형식별 빈도순서배열표	45
표 7. 유개식 II 단각고배의 형식별 빈도순서배열표	46
표 8. 경주지역 고분 출토 단각고배의 형식별 편년안	47
표 9. 월성로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61
표 10. 인왕동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61
표 11. 화곡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61
표 12. 월산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61
표 13. 방내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62
표 14. 신원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64
표 15. 물천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64
표 16. 경주지역 고분출토 무개식 단각고배 순서배열표	65
표 17. 경주지역 고분출토 유개식 I 단각고배 순서배열표	69
표 18. 경주지역 고분출토 유개식 II 단각고배 순서배열표	74

<삽도 목차>

삽도 1. 단각고배의 각부명칭 및 계측지점	7
삽도 2. 단각고배 뚜껍의 각부명칭	8
삽도 3. 6세기 대 유개식 고배 각종	9
삽도 4. 6세기 대 대부완 및 무개식 고배 각종	10
삽도 5. 단각고배의 유형	12
삽도 6. 경주지역 단각고배 출토 대상 유적의 위치	14
삽도 7. 대각단 형태	19
삽도 8. 투창과 투공	20
삽도 9. 유개식 장각고배 및 단각고배의 구연부 형태 비교	22
삽도 10. 뚜껍 드림부 단면형태	23
삽도 11. 뚜껍꼭지 각종	23
삽도 12. 7세기 대 인화문의 변천	24
삽도 13. 무개식 1형식	26
삽도 14. 무개식 2형식	27
삽도 15. 무개식 3형식	27
삽도 16. 무개식 4형식	27

삽도 17. 유개식 I 1형식	28
삽도 18. 유개식 I 2형식	28
삽도 19. 유개식 I 3형식	29
삽도 20. 유개식 I 4형식	30
삽도 21. 유개식 II 1형식	30
삽도 22. 유개식 II 2형식	31
삽도 23. 유개식 II 3형식	31
삽도 24. 유개식 II 4형식	32
삽도 25. 이단투창 장각고배의 분류	33
삽도 26. 일단투창고배	33
삽도 27. 부가구연장경호의 분류	34
삽도 28. 직구호의 분류	34
삽도 29. 배의 분류	35
삽도 30. 대부완의 분류	35
삽도 31. 유개식발의 분류	36
삽도 32. 보문리부부층 남자무덤 출토 유개식 I 2형식 단각고배	37
삽도 33. 손곡동·물천리유적 B지구 1호요지 출토 무개식 2형식단각고배 및 고 식 연화문수막새편(1·2), C-I-3지구 51호수혈 출토 고식 연화문수막 새(3·4), 백제 대통사지 출토 ‘大通’銘 인장과 및 연화문수막새(5·6)	38
삽도 34. 황룡사지 뿔층(1·2), 대지축토층(3~6) 출토 단각고배	41
삽도 35. 동천동 화장묘 출토 유개식 I 3형식 단각고배 및 뚜껑에 시문된 문양 (좌·우, 중앙 상단), 동일봉토 내 석실분 출토 무개식 3형식 단각고배(중 양 하단)	42
삽도 36. 동천동 와총 출토 직구호	43
삽도 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개식 연유 단각고배	43
삽도 38. 안압지(1~3) 및 남산(4) 출토 유개식 I 단각고배	44

<도면 목차>

도면 1. 경주지역 고분 출토 유물(1단계)	57
도면 2. 경주지역 고분 출토 유물(2-1단계)	58
도면 3. 경주지역 고분 출토 유물(2-2단계)	59
도면 4. 경주 인근지역 출토 유물(3단계)	60

I. 머리말

단각고배¹⁾는 고신라 말기 후기양식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서, 경주에서는 6세기대 적석목곽분에서 황혈식석실분으로 묘제가 전환하는 시기 또는 황룡사의 창건 시기를 전후하여 성립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²⁾. 이후 7세기 대까지 신라의 권역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양상을 볼 때 한 시기의 표지(標識)적 유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³⁾.

신라 당대의 문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왕경(王京)이었던 경주에서의 검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주지역 고분⁴⁾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의 형식학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연구목적

지금까지 단각고배를 다룬 연구에서는 옛 가야권역⁵⁾이나 진흥왕대의 신라권역 전체⁶⁾에서 출토된 단각고배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이러한 단각고배는 경주 이외의 지방 고분 출토품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단각고배의 기원을 백제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 견해⁷⁾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주 손곡동 33호 가마 등에서 단각고배가 제작되었던 사실이 확인⁸⁾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경주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학설⁹⁾이 더 설

1) 고신라시대의 고배는 6세기대에 이르러 대각의 높이가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후 경주를 비롯한 신라의 영역에서는 이른바 단각고배가 출현하고 있다. 단각고배란 장각고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체 높이가 낮고, 배신부의 높이보다 대각의 높이도 낮은 편이다. 세부적인 형태는 굽과 같은 짧은 대각에 투공() 등이 있는 것도 있으며, 배신부와 뚜껑은 운두(器深)가 높아 반구형에 가깝다. 구연은 짧고 내경하며, 뚜껑받이턱이 길게 발달한다. 뚜껑꼭지는 굽과 같은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뚜껑 외면에는 인화문이 시문된 것도 확인된다.

2) 朴普鉉, 「短脚高杯로 본 積石木槨墳 消滅年代」, 『新羅文化』第十五輯, 1998, pp. 81-99.

崔秉鉉, 「皇龍寺址出土 古新羅土器」, 『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編, 新興印刷, 서울, 1984, pp. 227-262.

3) 金鍾萬, 「短脚高杯의 歷史性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0, p. 3.

朴普鉉, 위의 논문, 1998, p. 84.

4)

5) 金宰賢, 「伽倻故地 出土 短脚高杯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7, 1991, pp. 93-134.

6) 金鍾萬, 위의 논문, 1990.

7) 釜山大學校博物館, 『金海 禮安里 古墳群 I』, 1985.

金宰賢, 위의 논문, 1991.

8) 李相俊, 「蓀谷洞 토기가마(窯)의 類型과 構造의 特徵」, 『年報』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8.

특력을 가지게 되었고 필자도 이 견해에 동감하고 있다.

본고는 단각고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편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고분 출토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단각고배가 주로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분의 경우 묘제의 특성상 박장(薄葬), 추가장, 도굴 등으로 인한 유물의 희소, 교란과 그에 따른 편년의 안정성을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폐기동시성(廢棄同時性)을 가지는 묘제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의 변화를 먼저 분석하여 횡혈식석실분의 출토 유물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투창(透窓)과 투공(透孔)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데, 고배의 시간적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각의 형태¹⁰⁾, 특히 대각단(臺脚端)의 변화¹¹⁾와 투창·투공 간의 조합이 단각고배의 시간적 변화를 검토하는데 가장 유효한 속성을 제시하였다.

2. 연구사

단각고배의 개념은 아직까지 연구자간의 견해가 상이하여 논문마다 그 범주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각고배가 후기양식토기¹²⁾ 내에서의 기종 중 하나로 다루어지거나 단각고배의 기원 혹은 단각고배가

9) , 위의 논문, 1998, p. 84.

10) 특히, 고배의 변화양상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요소가 대각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金龍星,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예-, 춘추각, 서울, 1998, p.132).

대각에서 확인되는 돌대의 구획과 투창의 배열 등 고배의 기형적 차이는 시·공간적 구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고식도질토기의 출현 이후부터 적석목곽분이 성행하는 시기까지 유행한 전기양식토기의 장각고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크기와 대각 길이가 축소되어 가고, 또한 돌대에 의해 구획된 대각의 단 수와 투창의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11) 대각단의 형태 변화에 주목한 연구로는 윤상덕의 논고 등이 있다(尹相惠, 「6-7세기 신라토기 相對編年 試論」-慶州芳內里古墳群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5, 2001, pp.213-214).

12) 후기양식토기에 대한 연구사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기 바란다(尹相惠,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연구현황과 과제」,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통일신라시대고고학』, 2004, pp. 99-115.).

본고에서는 후기양식토기의 개념 설정에 있어 홍보식의 견해(洪漣植, 「6-7世紀代 新羅土器의 製문제」-편년·양식·확산을 중심으로-, 『제10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 2001, pp. 126-129.)를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그 시작(홍보식은 500년경으로 설정함)에 대해서는 신라의 고분문화가 전체적으로 변질되고, 무투공의 단각고배와 부가구연장경호가 완전히 성립하는 단계로 본 김용성의 견해(金龍星, 「6-7세기 신라토기의 製문제 토론문」, 『제10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 2001, pp. 155-156.)를 따라서 6세기 전반의 늦은 시기로 보고자 한다.

제작되었던 시기의 사회상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단각고배 자체에 대한 검토¹³⁾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각고배의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고, 형식 분류와 변천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단각고배가 지닌 속성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것 같다. 아래에서는 단각고배에 대한 연구사를 후기양식 토기 내에서 언급된 연구와 단각고배가 중심소재로 다루어진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후기양식토기 내에서 단각고배가 언급된 연구로는 최병현, 홍보식, 윤상덕, 이한상의 논고 등이 있다¹⁴⁾.

최병현은 횡혈식석실분 단계부터 제작된 토기를 ‘신라후기양식 토기’라는 용어로 정립하면서 황룡사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기를 그 시작점으로서 다루고 있다. 특히, 층위적으로 안정된 빨층 및 대지축토층에서 출토된 고배 등의 폐기시점에 대해 황룡사의 창건연대가 확실한 점을 들어 단각화된 유개식 고배가 6세기 중엽 경부터 제작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홍보식은 ‘신라후기양식 토기’를 기종 구성의 단순화, 대각의 단각화, 침선문의 유행 등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양식토기’로, 660년경의 삼각집선문 소멸, 다양한 인화문 시문, 고배의 소멸, 신기종의 유행, 한강이남 전역에 걸친 규격화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를 ‘통일양식토기’로 정의하면서 6-7세기의 후기양식토기 기종을 형식분류하고 편년하였다. 고배류는 투창배치에 의해 상하교호투창고배·1단추창고배·무투창고배로 나누고 각각 형식을 상대서열하고 있는데, 홍보식의 2단계(530-550년대)부터 대각이 배신부보다 짧아지고, 대각이 아주 짧은 무투창고배가 등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상덕은 경주 방내리고분군에 출토된 토기를 대상으로 기종 간의 공반양상을 분석하고 상대편년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폐기동시성을 갖지 못하는 횡혈식석실분 출토 유물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학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고배류는 유개식과 무개식으로 나누어 유개식 고배에는 대각높이와 대각기울기(아랫지름/윗지름)의 상관관계 및 대각둘대유무를, 무개식 고배에는 대각기울기와 투공 배치상태를 각각 유효한 속

13) , 앞의 논문, 1990.

14) 崔秉鉉, 「新羅後期樣式土器의 成立 試論」,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考古學篇,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編, 一志社, 서울, 1987, pp. 563-596.

洪潛植, 앞의 논문, 2001, pp. 207-246.

尹相憲, 앞의 논문, 2001.

李漢祥, 「IV. 考察 2. 6-7世紀代 昌寧地域 土器의 變遷」, 『昌寧 桂城 新羅高銃群』, 慶南考古學研究所·昌寧郡, 2001, pp. 420-436.

성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대각 단부의 변화에 주목하여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한상은 금속장신구의 연대관을 토대로 하여 창녕 계성고분군을 중심으로 6세기 전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의 신라토기의 변천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개식 단각고배의 변천만을 다루고 있는데, 김해 예안리 49호묘에서 7세기 전반의 ‘황룡사형 대금구’와 그은 삼각집선문+찍은 반원점문이 시문된 고배 뚜껑이 공반하는 점에서 본격적인 인화문의 시작을 7세기 초로 편년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각고배가 중심소재로 다루어진 연구로는 김종만, 박보현, 윤용진·박순발, 重見 泰의 논고 등이 있다¹⁵⁾.

김종만은 6-7세기 대 신라 권역에서 출토된 고배를 대상으로 전통양식 고배와 단각고배로 나누어 형식분류와 편년을 시도하였는데, 구연부와 대각에서 확인되는 모든 속성을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단각고배는 6세기 후반의 진흥왕의 영토확장과 궤를 같이하여 경주에서 전파된 기종임을 출토지와 대조하여 제시하고, 안압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7세기 말 이전에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보현은 단각고배의 개념에 대해 배신부 대 대각부의 높이 비가 3 : 1 정도로 극히 낮은 굽 모양의 대각을 붙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 단각고배는 적석목곽분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단각고배가 출현할 당시의 묘제·매장관습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적석목곽분의 소멸 연대를 대가야의 멸망(562년) 이전으로 보는 근거로 지방의 폐기동시성을 갖는 무덤에서 단각고배가 고령계 토기뚜껑과 공반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윤용진·박순발은 경주 신원리고분군 출토 자료를 분석하여 유개식 고배를 대각의 높이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고 2.5cm 이상의 것은 대부분 투창을 가지고 있어 ‘유투창유개고배’로 명명하고, 이를 다시 돌대의 유무 및 투창의 배치에 따라 돌대가 있는 것은 이전 시기의 2단투창고배가 변화된 것으로, 돌대가 없는 것은 이전 시기의 1단투창고배가 변화된 것으로 보았다. 대각의 높이가 2.5~1.8cm 사이인 것은 ‘무투창단각고배’, 1.8cm 미만의 것은 ‘輪形단각고배’라고 하였다. 이렇게 각 유형들은 그 계

15) , 앞의 논문, 1990.

朴普鉉, 앞의 논문, 1998.

尹容鎭·朴淳發, 「IV. 考察 2. 土器」, 『慶州新院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慶南大學校博物館, 1991, pp. 63-71.

重見 泰, 「7世紀前後における新羅土器 <有蓋高杯>の形態變化」, 『考古學研究』 51-4, 2005, pp. 109-119.

통을 달리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重見 泰는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¹⁶⁾ 출토 유개식 고배를 대상으로 하여 구연부의 형태에 따른 형식분류와 층위적 분석을 통해 7세기 대 유개식 고배의 구연부 형태가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기에 유효한 속성임을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이 단각고배의 연구사를 두 가지의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단각고배의 범주가 다소 제한적이고 분류 기준도 상이(相異)한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기고, 배신부 대 대각의 높이 비를 가지고 단각고배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그동안 혼용(混用)되었던 투창(透窓)과 투공(透孔)의 개념을 크기와 제작기법의 차이에서 구분하였다.

단각고배는 묘제의 전환이나 신라의 영토 확장과 같은 당시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공반되는 신라기와, 인화문토기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의의(意義)를 지닌다. 아래에서는 경주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의 형식분류와 편년안을 제시하는 선행 작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단각고배의 범주를 설정하고 구연부 형태와 대각 돌대의 유무를 기준으로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III장에서는 6-7세기 대 경주지역의 총 7개 고분군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 단각고배의 시간적 변화를 잘 반영하는 기준 속성을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대각단의 형태와 투창·투공의 배치 여부를 토대로 단각고배를 유형별로 각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을 이용하여 형식 간·다른 기종 간의 공반양상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편년이 가능한 타 유적 출토의 단각고배, 기와, 인화문토기와 비교해 경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의 각 형식별 절대 편년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획기를 설정하여 단각고배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검토과제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16) 慶州캠퍼스博物館, 『慶州 皇南洞 376 統一新羅時代 遺蹟』, 2002.

II. 단각고배의 범주

기종 분류는 편년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토기의 계통을 파악하고 기종 간 대체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본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경주지역 고분 출토 단각고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단각고배의 범주를 먼저 설정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연구자 간에 단각고배의 범주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단각고배의 형식 분류를 처음 시도한 김종만은 소위 ‘전통양식고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형적인 단각고배와는 구분 짓고 있는데, 이 용어는 전기양식토기 단계에 장각의 이단투창고배 자체를 지칭하거나 또는 형태적으로 장각고배를 계승하지만 대각이 퇴화(단각화)된 특징을 갖고 시기적으로 적석목곽분의 소멸기에 나타나는 고배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단각고배’에 대해서는 전통양식고배의 변천과 더불어 신출(新出)하는데, 대각이 배신의 높이와 비슷하거나 圈臺처럼 극히 낮아진 것으로 뚜껑받이턱이 길게 뻗고, 대각에 돌대가 없고 투공도 1단 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형적인 단각고배는 퇴화된 전통양식고배와 공반한다고 하였다¹⁸⁾. 6세기 후반부터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천양상에 대해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각고배의 형식 분류가 이루어진 대부분 연구에서도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단각고배의 유형설정과 형식분류에 필요한 각부 명칭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 다음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단각고배의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다. 유형의 설정에는 뚜껑받이턱의 유무와 대각의 돌대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경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의 기형에 대한 인식을 돕고, 또한 타 유적에서 출토된 동일 유형과의 비교 검토가 보다 용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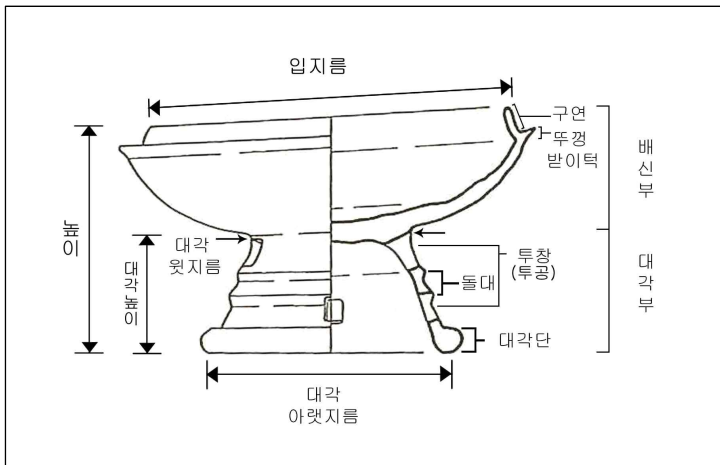
1. 각부명칭

17) ,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연구현황과 과제」,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통일신라시대 고고학』, 2004, p. 101.

18) 金鍾萬, 앞의 논문, 1990, pp. 1-2.

본고에서 단각고배의 범주를 정의하는데 있어 필요한 속성 및 계측 부위에 대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주축으로 단각고배 및 그에 공반하는 뚜껑의 부위별 명칭을 정리하였다(삽도 1, 2).

일반적으로 단각고배는 배신부와 대각부로 이루어져 있다(삽도 1). 단각고배에서 구연 또는 뚜껑받이턱이 확인되는 구연부는 배신부에 포함시켜 둔다. 대각부는 투창(공), 돌대, 대각단으로 구분한다. 투창은 예새¹⁹⁾로 잘라 방형에 가까운 구멍이 나타나는데, 모서리에서 그은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투공은 예새로 대각 두께의 절반 정도만 그은 뒤 안으로 밀어서 뚫은 것으로 구멍의 모양이 방형 또는 타원형으로 나타나는데, 투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대각부의 내면에서 태토의 밀린 흔적이 확인된다. 돌대는 외면에 요철(凹凸)형태로 나타나는 튀어나온 부분이다. 대각단은 대각의 접지면부터 대각 끝이 처리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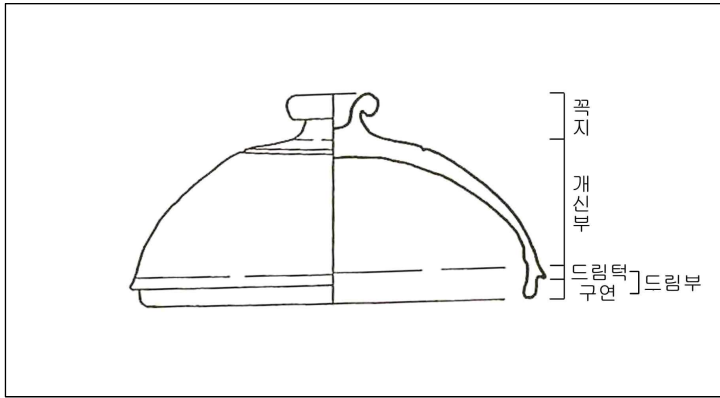


삽도 1. 단각고배의 각부명칭 및 계측지점(國立慶州文化財 研究所, 2004, p. 123 圖面 58-21 부분수정)

그리고 단각고배의 계측은 측점(測點)의 위치에 따라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다. 전체높이는 구연부부터 접지면까지로 하되 기형

19)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예각을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 기물을 다듬을 때나 세밀한 부분의 정형 도구로 사용된다(신미영, 내가 만드는 도자기 물레성형기법, 예경, 서울, 2004, p. 22).

이 찌그러진 경우에는 구연부의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대각의 높이는 배신부에서 대각으로 이어지는 가장 잘록한 부분부터 접지면까지로 하되, 기형이 찌그러진 경우는 기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배신부의 높이는 대각의 높이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입지름과 대각윗지름은 양 외면 간의 거리이다. 대각아랫지름은 대각단의 양 외면 간의 거리로 할 경우, 대각단의 형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각의 접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삽도 2. 단각고배 뚜껑의 각부명칭(國立慶州文化財 研究所, 2004, p. 123 圖面 58-3 부분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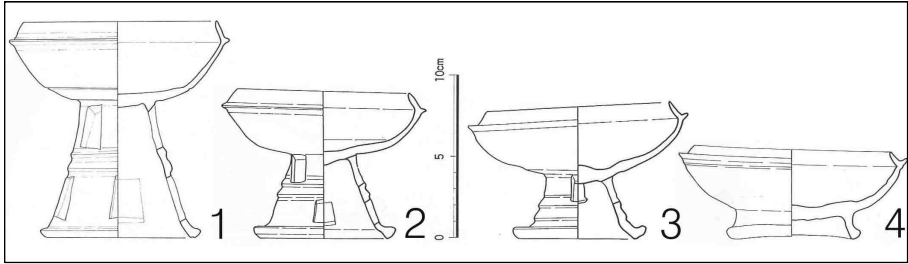
단각고배의 뚜껑은 드림부, 개신부, 꼭지로 이루어져 있다. 드림부는 뚜껑의 구연과 드림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삽도 2>와 같이 구연 외면에 드림턱이 돌출한 것은 드림부 단면형태에 의해 卜자형으로, 드림턱 대신 구연 내면에 안턱이 돌출한 것은 드림부 단면형태에 의해 入자형으로 구분한다²⁰⁾. 개신부는 뚜껑의 동체부로서 드림부와 꼭지로 이어진다. 문양은 개신부 외면에 시문된다. 꼭지는 뚜껑의 손잡이부분에 해당된다.

2. 유형의 설정

앞서 연구사 검토에서 살펴본 6세기 대 이후 고배 각종을 구분하여 정

20) , 앞의 논문, 2001, pp. 217-222.

리하면 다음과 같다(삽도 3, 4 · 표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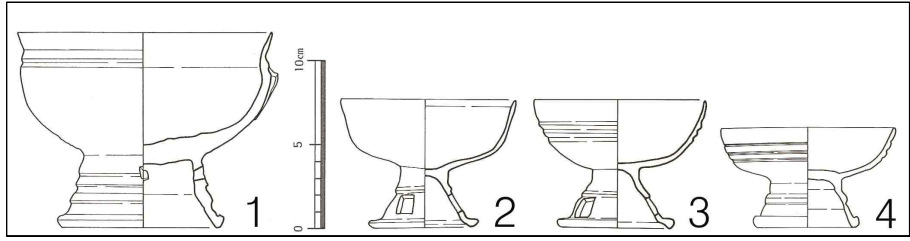


삽도 3. 6세기 대 유개식 고배 각종

표 1. 6세기 대 유개식 고배의 구분

구분 연구자	삽도 3-1	삽도 3-2	삽도 3-3	삽도 3-4	구분 기준
김종만(1990)	전통양식고배(유개식)			단각고배 (유개식)	보문리부부총 夫墓 출토 고배, 대각축소
박보현(2004)	전통양식고배			단각고배	배신고 : 대각고 =3 : 1
윤상덕(2001)	유개식고배			단각고배	대각고 2.4cm 이하
김용성(1998)	장각의 2단투창고배		(X형)단각의 1단투창고배	-	대각 축소
한국문화재보 호재단(2000)	유개고배			단각고배	기고 8cm 미만? 배신고 : 대각고 =1 : 1이하
필자	유개식 장각고배		유개식 단각고배		기고, 배신고 : 대각고
	10cm 이상	10cm 미만	9.5cm 이하		기고
	1 : 2내외	1 : 1.1이상	1 : 1이하		배신고 : 대각고

먼저 6세기 대 유개식 고배 각종을 살펴보면, 삽도 3-1, 2는 대각이 배신부의 높이보다 길어서 장각고배로 구분되며, 삽도 3-4는 굽과 같이 낮은 대각이 붙어 있는데 단각고배로 불리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삽도 3-3의 경우, 대각고가 배신고와 비슷하거나 약간 짧은 것으로, 명칭도 엇갈리고 특별한 기준도 모호하여 문제가 된다. 연구자들 간에 구분 기준으로 제기하는 것은 보문리부부총 夫墓 출토 유개식 고배와의 유사도, 대각의 축소 경향, 배신고 대 대각고의 비율, 기고 등이 있다(표 1). 제 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안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구분 기준이다²¹⁾. 이를 참고로 하여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적 출토 유개식



삽도 4. 6세기 대 대부완 및 무개식 고배 각종

표 2. 6세기 대 대부완 및 무개식 고배 구분

구분 연구자	삽도 4-1	삽도 4-2	삽도 4-3	삽도 4-4	구분 기준
김종만(1990)	전통양식고배(무개식)			단각고배 (무개식)	대각축소, 무투공 여부
홍보식(2001)	대부완	무개고배			* 기고 10cm 이상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2003)	대부완	무개고배	대부완		배신부 돌대 여부?
윤상덕(2001)	무개식고배 (대형)	무개식고배(소형)			구경 11cm 이상
필자	대부완	무개식 단각고배			구경, 배신고
	배신고 : 대각고 = 1 : 1이하	배신고 : 대각고 = 1 : 1이하			공통점
	구경 12.1cm 이상 또는 배신고 5.1cm 이상	* 기고 9.5cm 이하, 구경 12cm 이하, 배신고 5cm 이하			차이점

고배를 계측한 결과 대체로 기고 9.5cm 이하에서 배신고 대 대각고의 비율이 같거나 대각이 더 짧아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²²⁾. 이는 기존의 높이 9cm 또는 10cm가 기준으로 된다는 분석치²³⁾와도 유사하다. 따라

21) 慶州市, 『慶州市 栗洞 1108番地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2000.

22) 6세기 대에 이르면 고배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지고, 대각의 높이는 배신부의 높이와 비슷하거나 보다 낮아진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金元龍, 『新羅土器』(韓國의 美術 1), 悅話堂, 서울, 1981, p. 71.

金龍星, 앞의 책, 1998, p. 136.

朴普鉉, 앞의 논문, p. 81.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馬事會, 『慶州 競馬場 豫定敷地 C-I 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1999 p. 487.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앞의 보고서, 2000, p. 28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蓀谷洞·勿川里 遺蹟』-慶州競馬場豫定敷地 A地區-, 2004, p. 893.

聖林文化財研究院, 『慶州 花谷里 新羅墳墓群』, 2007, pp. 327-328.

23) 화곡리 분묘군 출토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IV형식은 높이가 9cm 미만일 때 1 : 1이하라고 언급하고 있다(聖林文化財研究院, 앞의 보고서, 2007, p. 327). 울동 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배의

서 본고에서는 단각고배의 범주를 높이가 9.5cm 이하이면서 배신부 대 대각 높이 비율이 동일하거나 대각이 더 낮은 것으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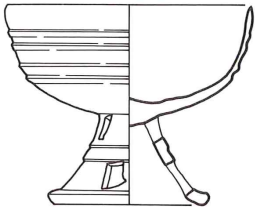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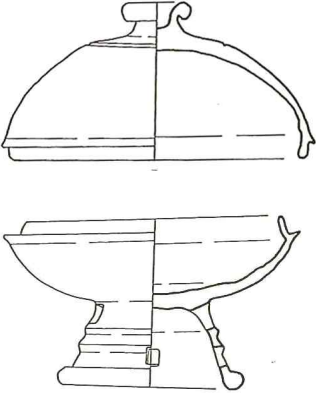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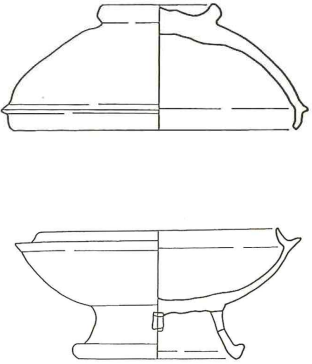
다음으로 6세기대 무개식 고배를 살펴보면, 삽도 4-1은 나머지 2, 3, 4에 비해 기고 더 크고 구경도 현저히 넓은 편에 속한다. 대체로 삽도 4-1은 대부분으로 불리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것들은 배신부의 높이보다 대각이 짧은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유개식 단각고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고 9.5cm 이하인 것은 삽도 4-2, 3, 4가 해당된다(표 2). 이를 참고로 하여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적 출토 무개식 고배 또는 대부분을 계측한 결과 대체로 기고 9.5cm 이하인 것은 구경 12cm 이하, 배신고는 5cm 이하 대각고는 4.5cm 이하에 분포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삽도 3-3의 경우 단각고배로 부르지 않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대각이 배신부가 높이보다 더 짧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면 단각고배로 명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6세기 이후의 고배 가운데 기고 9.5cm 이하이면서 배신고 대 대각고의 비율이 1 : 1이하인 것을 단각고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외에도 구연부가 내경하고 뚜껑받이턱이 발달한다거나 대각에 투창과 함께 투공, 무투공이 나타나는 점, 특정 대각 단 형태의 출현 등도 단각고배의 범주를 한정하는데 필요한 속성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은 단각고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뚜껑받이턱 유무에 따른 기형적 차이에서 먼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뚜껑받이턱이 없고, 배신부가 반구형을 이루는 것을 무개식 유형로, 뚜껑받이턱이 있어 주로 뚜껑과 세트로 조합되는 것을 유개식 유형로 설정하였다. 유개식 단각고배는 다시 대각에 돌대가 있는 것을 유개식 I 유형, 대각에 돌대가 없는 것을 유개식 II 유형으로 명명하여 세부 유형을 설정하였다²⁴⁾(삽도 5).

경우, 높이 10cm 내외에서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III형식이 1 : 1에 가깝다고 하였다(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앞의 보고서, 2000, p. 283). 이외에 높이 8cm를 기준으로 한 경우도 확인된다(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馬事會, 앞의 보고서, 1999, p. 487).

24) 신원리고분군 출토 유개고배(본고에서의 유개식 단각고배)를 분류하여 유형을 설정하면서 대각 돌대의 유무는 기능적 속성이 아닌 양식적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즉 5세기 말 6세기 전반의 2단 투창고배가 유돌대유투창고배(본고에서의 유개식 I)로, 동시기의 1단투창고배가 무돌대유투창고배(본고에서의 유개식 II)로 각각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尹容鎭·朴淳發, 앞의 글, 1991, pp. 68-70).

유형의 분류 기준		
무개식 <뚜껑받이턱 無>	유개식 <뚜껑받이턱 有>	
	유개식 I <대각 들대 有>	유개식 II <대각 들대 無>
		

삽도 5. 단각고배의 유형

단각고배를 세부 유형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하고 난 후, 고분 출토 단각고배를 각 유형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겪었는데 몇 가지 언급해 보겠다. 단각고배가 완형 또는 도상복원이 가능한 정도로 남아 있는 경우는 유형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파편의 상태인 경우는 구분에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유개식 I 과 II는 대각의 형태에서 확연히 구별이 가능하나 배신부만 남아 있는 경우, 구연 형태나 구경, 배신부 높이 등에서 구별이 쉽지 않다. 대각부와와의 접합면이 확인된다면, 대각윗지름이 작은 것은 유개식 I 일 가능성이 높지만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무개식과 유개식 I 은 배신부의 형태에서 확연히 구별이 가능하나 대각부만 남아 있을 경우, 대각들대, 투창(공)의 배치형태, 대각단 형태 등에서 유사하다. 다만 배신부의 일부가 남아 있다면 배신부에 들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무개식이다. 또한 배신부의 벌어지는 각도에서 무개식이 유개식보다 다소 좁은 편이고, 대각윗지름도 무개식이 유개식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Ⅲ. 경주지역 고분 출토 단각고배

1. 현황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6-7세기대 고분의 묘제는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곽묘, 횡혈식석실분 등이 있다. 이들 고분들을 열거하면 미추왕릉지구 고분군²⁵⁾, 월성로고분군²⁶⁾, 호우총²⁷⁾, 황남동 106-3번지고분군²⁸⁾, 황오동100유적²⁹⁾, 방내리고분군³⁰⁾, 천군동 피막유적³¹⁾, 사라리유적³²⁾, 보문리고분군³³⁾, 동천동고분군³⁴⁾, 인왕동 668-2번지고분군(이하 인왕동고분군)³⁵⁾, 손곡동·물천리유적 고분군(이하 물천리고분군)³⁶⁾, 충효동고분군³⁷⁾, 서악동고분군³⁸⁾, 율동1008번지 고분군³⁹⁾, 화곡리 화곡저수지고

-
- 25) _____, 『慶州史蹟管理事務所, 『慶州地區 古墳發掘調査報告書』 제1집, 1973.
_____, 『慶州地區 古墳發掘調査報告書』 제2집, 1980.
- 26)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慶州市, 『慶州市月城路古墳群』, 1990.
- 27) 김재원, 『호우총과 은령총』, 국립박물관, 1964.
국립중앙박물관, 『호우총 은령총』-발굴6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6.
- 2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皇南洞 106-3番地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95.
- 29)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慶州 皇吾洞100遺蹟 I』, 2008.
- 30) 慶州文化財研究所, 『乾川休憩所新築敷地 發掘調査報告書』, 199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芳內里古墳群』(出土遺物), 1996.
_____, 『慶州芳內里古墳群』(本文), 1997.
_____, 『慶州 芳內·棗田里 古墳群』,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緊急發掘調査報告書Ⅲ), 1998.
- 嶺南文化財研究院, 『경부고속철도 경주 건설구간내 경주 방내리고분군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41-, 2007. 8.
- 31)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慶州 千軍洞 避幕遺蹟』, 1999.
- 32) 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舍羅里遺蹟 I』, 1999.
_____, 『慶州 舍羅里 525番地遺蹟』, 2005.
- 33)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3, 1916, 圖版 1125-1185.
차순철, 「경주 보문동 고분군 축조집단에 대한 검토」, 『慶州文化研究』第7輯, 慶州大學校 文化財研究所, 2005, pp. 115~134.
- 34) 朝鮮總督府, 위의 책, 1916, 圖版 1186-1196.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東川洞 收拾調査 報告」, 『國立慶州博物館年報』-1994年度-, 1995, pp. 45~174.
- 3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仁旺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2002.
- 3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競馬場豫定敷地 試掘調査報告書』, 1996.
_____, 앞의 보고서, 2004.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馬事會, 앞의 보고서, 1999.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韓國馬事會, 『慶州 蓀谷洞·勿川里遺蹟(Ⅲ)』-競馬場 豫定敷地(史蹟430號) B地區-, 2002.
- 37) 有光教一, 「慶州忠孝里石室墳調査報告」, 『昭和七年度 古蹟調査報告』第二冊, 朝鮮總督府, 1937.



삽도 6. 경주지역 단각고배 출토 대상 유적의 위치(慶州市, 『慶州市誌』, 2008 전제)

분군II(이하 화곡리고분군)⁴⁰⁾, 월산리유적 I(이하 월산리고분군)⁴¹⁾, 신원리고분군⁴²⁾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2006년에 개최된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학술대회 자료집⁴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慶州忠孝里盜掘古墳의 調査」, 『昭和十一年度 古蹟調査報告』第二冊, 朝鮮總督府, 1937.

38) 尹武炳·朴日勳, 「慶州西岳里石室墳發掘調査」, 『考古學』1, 韓國考古學會, 1968, pp. 77-114.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16, 圖版 1197-

39)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앞의 보고서, 2000.

40) 聖林文化財研究員, 앞의 보고서, 2007.

41)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月山里遺蹟』, 2003.

42) 慶北大學校博物館·慶南大學校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1.

43) 吉正秀夫, 「일제 강점기 경주 신라고분의 발굴조사」,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국립경주

여기에서는 단각고배의 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곱 군데의 고분군, 즉 월성로고분군, 인왕동고분군, 화곡리고분군, 월산리고분군, 방내리고분군, 신원리고분군, 물천리고분군을 대상으로 삼았으며⁴⁴⁾, 총 130기의 고분에서 총 480점의 단각고배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고분 중 보문리부부총, 동천동화장묘 등에서 출토품은 황룡사지, 안압지 출토품 등과 함께 IV장에서 비교자료로 활용하였다(삽도 6).

1) 월성로고분군⁴⁵⁾

월성로고분군은 황오동과 인왕동을 지나는 월성로 일대에서 하수도 공사 중 노출되었으며, 1985년 발굴조사를 통하여 적석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 총 56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단각고배가 출토된 고분은 총 12기로 <표 9>과 같고, 단각고배의 개수는 총 27점이다. 유형별로 무개식 20점, 유개식 I 7점이 있다.

2) 인왕동고분군⁴⁶⁾

인왕동고분군은 인왕동 668-2번지에 위치하며, 1993년에 인근의 남고루 유적 발굴조사 과정 중 토광묘,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등 총 33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단각고배가 출토된 고분은 총 4기로 <표 10>과 같고, 단각고배의 개수는 총 8점이다. 유형별로 무개식 7점, 유개식 I 1점이 있다.

3) 화곡리고분군⁴⁷⁾

문화재연구소, 2006, pp. 7-20.

차순철,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경주 신라고분 발굴조사』,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pp. 21-45.

이외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앞의 보고서, 2000, p. 277 ; 國立慶州博物館, 『신라인의 무덤』-新羅陵墓의 形成과 展開-, 1996 ; 金大煥, 『嶺南地方 積石木槨墓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2001, p. 24).

44) 각 고분의 묘제는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고서 상에서 의문시하여 추정된 내용이 있거나 필자가 의문시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하여 두었다.

45) 국립경주박물관·경북대학교박물관·경주시, 앞의 보고서, 1990.

4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2.

47) 성립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07.

화곡리고분군은 내남면 화곡리 18-1번지 일원의 화곡저수지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2005년에 발굴조사를 통하여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등 총 47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단각고배가 출토된 고분은 총 3기로 <표 11>과 같고, 단각고배의 개수는 총 20점이다. 유형별로 무개식 1점, 유개식 I 5점, 유개식 II 14점이 있다.

4) 월산리고분군⁴⁸⁾

월산리고분군은 내남면 월산리 산117-1번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1998~1999년에 화물주차장 전용 휴게소 부지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통해 총 187기의 고분과 이외에도 청동기시대 주거지, 목탄요지 등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확인된 묘제는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곽묘, 횡혈식석실분, 옹관묘가 있다. 그 중에서 단각고배가 출토된 고분은 총 40기로 <표 12>과 같고, 단각고배의 개수는 총 116점이다. 유형별로 무개식 40점, 유개식 I 32점, 유개식 II 44점이 있다.

5) 방내리고분군⁴⁹⁾

방내리고분군은 건천읍 방내리의 말암산 자락에 200여기가 분포하고 있는데,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구간에 속한 총 67기의 고분이 발굴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적석목곽묘⁵⁰⁾, 석곽묘, 횡혈식석실분과 같은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단각고배가 출토된 고분은 총 42기로 <표 13>과 같고, 단각고배의 개수는 총 197점이다. 유형별로 무개식 30점, 유개식 I 93점, 유개식 II 74점이 있다.

6) 신원리고분군⁵¹⁾

4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3.

4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1996.

_____, 앞의 보고서, 1997.

5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보고서, 1997에서는 적석목곽묘를 상부의 축조시설에 의해 ‘적석 봉토분’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장주체부시설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본 고에서 다루는 다른 6개 고분군 중에 매장주체부는 적석목곽묘이지만 봉분이 남아 있지 않은 예도 확인되므로 ‘적석목곽묘’로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한다.

51) 경북대학교박물관·경남대학교박물관, 앞의 보고서, 1991.

신원리고분군은 산내면 신원리 산2번지에 위치하며, 1990년에 건천-청도 간 도로확장공사 중 9기가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분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단각고배가 출토된 고분은 총 7기로 <표 14>과 같고, 단각고배의 개수는 총 53점이다. 유형별로 무개식 5점, 유개식 I 15점, 유개식 II 33점이 있다.

7) 물천리고분군⁵²⁾

물천리고분군은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인접한 손곡동 일대와 함께 경마장 건설부지에 포함되어 1995~2000년에 시·발굴조사를 통해 고분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 목탄·토기·기와요지 및 공방지 등의 각종유구가 총 665기 확인되었다⁵³⁾. 단각고배가 확인된 고분은 C-I 지구가 속한 물천리에 분포하므로 물천리고분군이라고 명명하였다. C-I 지구의 고분 총 38기에서 확인된 묘제는 석곽묘, 횡구식석실분, 횡혈식석실분, 옹관묘가 있다. 그 중에서 단각고배가 출토된 고분은 총 21기⁵⁴⁾로 <표 15>과 같고, 단각고배의 개수는 총 59점이다. 유형별로 무개식 14점, 유개식 I 14점, 유개식 II 31점이 있다.

이상 7곳의 고분군에서 단각고배가 출토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다시 묘제별·유형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단각고배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묘제는 목곽묘와 적석목곽묘이고, 이후의 석곽묘와 석실분에서는 출토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묘제와 단각고배의 유형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목곽묘·적석목곽묘·옹관묘에서는 무개식과 유개식 I 이 주로 출토되고, 유개식 II는 상대적으로 석실분에서 주종을 이루는 양상이다. 석곽묘에서는 세 유형이 비슷한 비율로 확인된다.

2. 분류기준

단각고배의 형식 분류는 상기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단각고배의 속성으로 구연부 형태와 대각 형태, 문양 등을 들 수 있다. 대

52)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마사회, 앞의 보고서, 1999.

5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p. 893, 표 8.

54) 해당 고분을 표기함에 있어 'I 지구'라는 문구는 생략하였다. 예) C-I-1-6호 → C1-6호

표 3. 묘제별 단각고배 유형의 출토 현황

(단위 : 점)

묘제 구분		유형	무개식	무개식 추정	백분율	유개식 I	유개식 I 추정	백분율	유개식 II	유개식 II 추정	백분율	소계	비고
옹관묘		2기	3		2.6%			0%			0%	3	
목곽묘		4기	4		3.4%			0%	2		1.0%	6	월성로 가9호, 인왕동 13B호: 적석목곽묘?
적석목곽묘	적석목곽묘	17기	24		21.4%	45	1	37.1%	7		5.6%	77	98
	관련유구	4기	1			15	1		4	21			
석곽묘	석곽묘	27기	18	1	51.3%	15	1	29.4%	25		35.7%	60	179
	수혈식석곽묘	30기	28	1		23			35	87			
	횡구식석곽묘	7기	10			10			10	30			
	관련유구	2기	2							2			
석실분	석실분	2기			21.3%	2		33.5%	10		57.7%	12	194
	횡구식석실분	7기	5			15			32	1		53	
	횡혈식석실분	24기	14	1		28	1		61	1		106	
	관련유구	4기	5			10			7	1		23	
합계		130기	114	3	100%	163	4	100%	193	3	100%	총 480점	
			117			167			196				

각 형태의 변천과 관련한 속성은 대각높이와 대각 내경도(대각 윗지름/아랫지름), 투창과 투공의 배치와 개수, 돌대의 개수, 대각단의 형태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단각고배의 속성들을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고, 시간성에 가장 민감한 속성을 추출하도록 하겠다.

1) 대각단⁵⁵⁾

대각단의 형태는 외반형, 상향돌출형, 권(捲)형, 편평형, 내경(內頃)형으

55) 대각단의 형태에 대한 분류는 윤상덕이 시도한 바 있는데(윤상덕, 앞의 논문, 2001), 기존의 대각 끝이 수평으로 뻗거나 끝이 위로 뾰족하게 향하는 형태를 모두 외반형으로 묶었으나 본고에서는 양자 간의 선후관계가 인지된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로 구분된다(삽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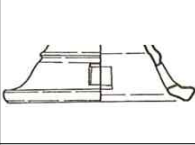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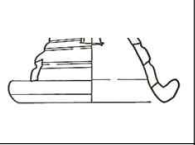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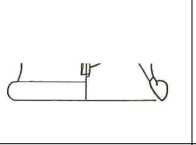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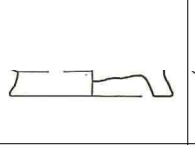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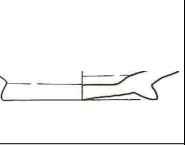
외반형은 전기양식 토기단계부터 나타난 형태로 단각고배의 이른 단계부터 확인된다. 대각의 끝이 밖으로 뺀어 수평을 이룬다.

상향돌출형은 대각의 끝이 사선방향의 위를 향해 뾰족하게 뺀고, 대각과의 사이에 공간이 있다.

권형은 외반된 대각단이 밖으로 말린 형태로 단면이 둥글거나 삼각상으로 마무리된다.

편평형은 대각단이 아래로 뺀어 접지면이 넓게 닿거나 접지면 밖이 직선적으로 들린 형태이다.

내경형은 대각단이 꺾여서 직선을 이루며 안쪽으로 들려 올라가는 형태로 밖으로 뾰족하게 각이 진 형태이다.

				
외반형	상향돌출형	권형	편평형	내경형

삽도 7. 대각단 형태

2) 투창과 투공

투창(透窓)과 투공(透孔)의 구분은 단각고배의 변천양상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속성 중 하나이다. 가장 이른 시기로 기형인 보문리부부총 夫墓 출토 유개식 I 단각고배에 4개의 투창이 2단으로 배치되는데 반해 가장 늦은 시기의 기형인 안압지 출토 유개식 I 단각고배에는 2개의 1단 투공이 확인되고 있어 시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고배의 대각에는 돌대에 의해 구획된 공간에 투창이나 투공이 배치되는데, 전기양식 토기단계의 장방형 투창에서 후기양식토기 단계에는 투창이 점차 소형화되고, (장)방형이나 타원형의 투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크기의 축소와 함께 투창(투공)의 단 수(2→1→0), 한 단에 배치되는 투창이나 투공의 개수

(4→3→2 · 1→0)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삽도 8. 투창과 투공 (경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김태중 기증유물 일호22-좌, 일호26-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별다른 구분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투창과 투공에 대한 용어 문제에 대한 언급은 김원룡에 의한 연구⁵⁶⁾가 있다. 후기양식 단계의 고배에 대한 설명에서 대각에 뚫린 구멍의 한 변이 1cm 내외로서, 몇 mm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여 그 기준이 1cm인 듯하다. 한편, 홍보식⁵⁷⁾은 대각에 예새로 쥔 것을 투창, 방형의 도구로 밀어 뚫은 것을 투공으로 규정하여 제작수법 상의 차이에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매우 명확한 기준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투공된 대각의 내면은 투공 주위에 태토가 밀려서 지저분한 상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삽도 8의 우측하단). 다만 투공 주위에서 예새가 닿아서 매끄러운 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도구를

56) 김원룡, 앞의 책, 1981, p. 79.

57) 홍보식, 앞의 논문, 2001, p. 123.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예새로 작게 그은 후 대각 내면으로 밀어낸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단각고배 대각의 투창과 투공의 개념이 정의되어 구분하고 있는 예가 드물고, 또한 도면상에서도 그 구분이 쉽지 않아 단각고배의 연구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투창과 투공의 구분을 통한 도면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 유물의 사진과 같이 모서리에서 예새로 자른 흔적이 확인되거나(삽도 8의 좌측상단) 한 변이 1cm이 이상인 것은 투창으로, 자른 흔적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서 가로·세로 양 변 또는 직경이 1cm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투공으로 구분하였다.

3) 대각윗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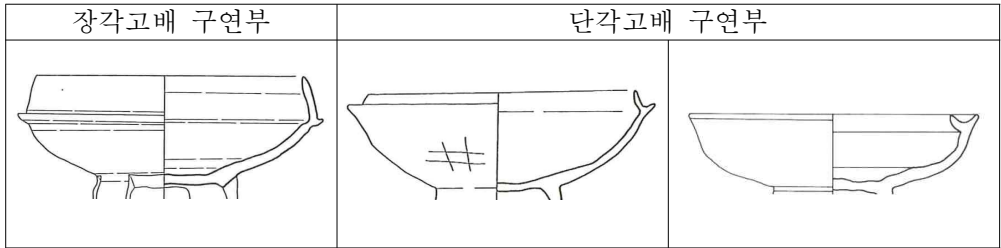
본고에서의 단각고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전통양식 고배라고 불리는 것 중 높이 9.5cm 이하, 대각높이가 4.5cm 미만에 한정되는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단각고배는 배신부 대 대각부의 높이가 3 : 1 정도로 대각에 1단의 투공이 있거나 무투공인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대각의 형태는 형식 분류의 제1속성으로 다루고 있다.

대각의 높이가 높을수록 대각의 내경도가 낮아 대각이 八자형에 가깝고, 대각의 길이가 낮을수록 대각의 내경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 사다리꼴(梯形)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내경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대각의 윗지름은 선후관계에 분명하며 시기 폭이 큰 단각고배들 간의 대각윗지름을 측정한 결과, 무개식 단각고배는 대체로 4cm를 기준으로, 유개식 단각고배는 5cm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이면 빠른 속성들과 조합하고, 그보다 큰 값일 땐 늦은 속성들과 조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58)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 사로국 요를 운영하시는 도공 박병택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반건조된 토기의 대각에 예새로 실험을 하였다. 예새로 긁는 면적과 투창·투공 제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 변 1cm 미만으로 그었을 경우 자른 소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어렵고 끄집어 내더라도 대각 외면이 지지분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투창을 2~3cm 가량으로 자른 소지는 밖으로 빼기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투공은 우선 예새로 긁고 난 후 안으로 밀어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도움을 주신 박병택씨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이외에 대각의 돌대는 단각고배가 존속하는 전시기에 걸쳐 2개에서 0개 까지 확인되나, 이는 단각고배의 계통과 관련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4) 고배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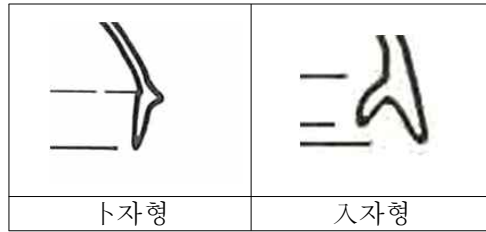
삽도 9. 유개식 장각고배 및 단각고배의 구연부 형태 비교

구연부의 길이는 전기양식과 후기양식 간에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지만(삽도 9) 후기양식 단계 내에서는 고배의 구연부 길이가 시간적 속성으로 유효한 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구연부의 형태에 대한 연구⁵⁹⁾에서는 장각고배에서 단각고배로 이어지면서 배신부의 긴 구연이 축소되고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뚜껑받이턱이 상향돌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장각고배와 단각고배의 구연부 형태 간에는 명확한 기형적 차이점이 보이는데 반해 후기양식토기 단계 내에서 단각고배 구연부는 변화의 정도가 확연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단각고배의 쇠퇴기에 구연의 길이는 더 축소되어 뚜껑받이턱과 높이가 거의 비슷한 예(단면 y자형 삽도 9의 우측)가 확인되는 점에서 구연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단각고배에서는 가장 늦은 단계의 구연부 형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IV장에서 비교 대상으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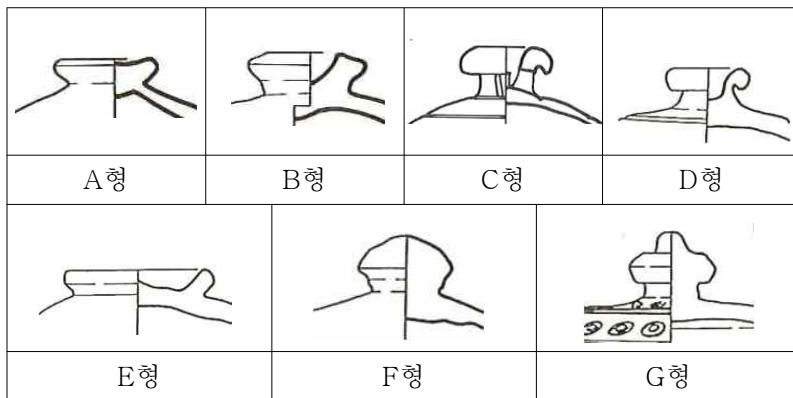
5) 뚜껑

59) 윤상덕, 앞의 논문, 2001, p. 213.
 泰, 앞의 논문, 2005, p. 110.

단각고배와 세트를 이루는 뚜껑은 드림부의 단면형태에 따라서 卜자형과 入자형으로 구분된다(삽도 10). 卜자형은 적석목곽분 단계의 토기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는 기형이고 入자형은 황혈식석실분 단계부터 새롭게 출현하는 토기의 뚜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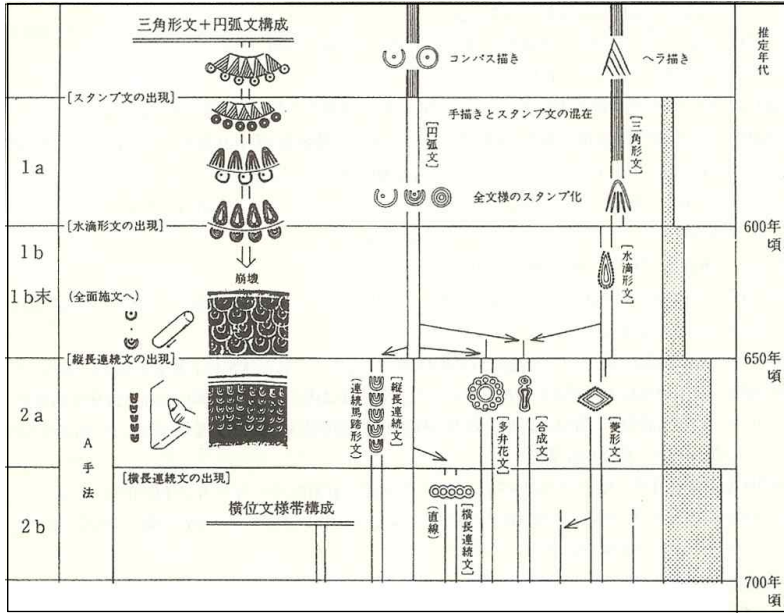
삽도 10. 뚜껑 드림부 단면형태



삽도 11. 뚜껑꼭지 각종

단각고배 뚜껑의 꼭지의 형태는 다섯 예가 확인되는데 오목단추형(A형)과 접시형(B형)은 전기양식토기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이다. 대각축소형(C·D형)은 전기양식토기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작고 끝이 말려 있다. (C형)은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고 투공이 있는 것도 있다. (D형)은 (C형)에서 더 소형화된 것으로 끝이 뾰족하게 말려 있다. 굽형(E형)은 마치 단각고배의 굽과 유사하다. 보주형(F형·G형)은 단이 없는 것(F형)에서 단이 지는 형태(G형)로 변화한다(삽도 11).

6) 문양



삽도 12. 7세기 대 인화문의 변천(高正龍, 「葛項寺石塔と舍利容器 -8世紀中葉の新羅印花文土器-」, 『朝鮮古代研究』第2號, 朝鮮古代研究會, 2000. 부분 전재)

6-7세기의 토기에 시문된 문양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고배·뚜껑·부가구연장경호·합 등 다양한 기종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단각고배와 조합되는 뚜껑에 시문된 문양은 형태 변화 이상으로 단각고배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주요한 속성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三角集線紋+圓文類 조합의 그은 수법에서 압인 수법으로의 전환, 그 후 나타나는 水滴形紋, 縦長連續馬蹄形紋 등의 등장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문양의 구성과 시문 방식에 의한 편년 연구도 제시되어 있다⁶⁰⁾(삽도 12). 그러나 이후 인화문의 연대에 대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안압지에서 출토된 수적형문 시문된 뚜껑이 덮인 진단구는 그 내부에 공반한 唐 開元通寶의 初鑄 연대(621년)와 안압지의 조성연대(674년) 사이에는 수적형문이 출현한 것으로 볼 수

60) ,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1988, pp. 72-94.

있어⁶¹⁾, 그 출현은 빨라도 7세기 전반의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또한 단일 원문류의 밀집시문은 부여 정립사지 연지에서 출토된 인화문토기가 660년이라는 폐기 상한에 따라 그 출현은 7세기 후반의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⁶²⁾. 따라서 종장연속문의 출현은 그 이후일 것이다. 그는 삼각집선문+찍은 원문류 조합구성의 시기는 인화문의 시작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획기가 된다. 김해 예안리49호묘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황룡사형 대금구와 조합되는 토기에서 그는 삼각집선문과 찍은 원문이 시문되고 있어 압인수법은 7세기 초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³⁾. 따라서 최근의 인화문 연대관은 <삽도 12>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대략 1/4분기 정도 늦춰보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도 이상의 연대관을 따르고자 한다.

표 4. 대각단 형태와 투창·투공 여부의 속성 조합에 따른 형식분류

유형 투창 (공) 대각단 형태	무개식			유개식 I			유개식 II		
	투창	투공	무	투창	투공	무	투창	투공	무
외반형	● (1형식)	○ (1형식)		● (1형식)	○ (1형식)		● (1형식)	○ (1형식)	● (1형식)
상향 돌출형	● (2형식)	● (2형식)		● (2형식)	● (2형식)		● (2형식)	● (2형식)	● (2형식)
권(捲) 형	● (3형식)	● (3형식)	● (4형식)	● (3형식)	● (3형식)	● (4형식)	● (3형식)	● (3형식)	(3형식) ● (4형식)
편평형									● (4형식)
내경형									● (4형식)

61) ,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서울, 2003, p. 107.

李東憲, 「印花文 有蓋盃 研究」-慶州地域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 考古學科 碩士學位論文, 2008. pp. 90-91.

62) 이희준, 「부여 정립사지 蓮池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 『한국고고학보』 31집, 1994, pp.121-135.

홍보식, 위의 책, 2003, pp.107-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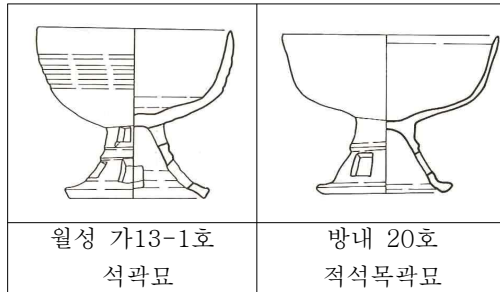
이동현, 위의 논문, 2008, pp. 94-95.

63) 이한상, 앞의 글, 2001, pp. 429-430.

3. 형식분류

앞에서 살펴 본 단각고배의 속성들 중에서 변화상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속성은 대각단의 형태와 투창과 투공의 배치 여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각 4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표 4). 유개식Ⅱ유형의 3형식과 4형식의 경우, 권형의 대각단과 무투공의 조합이 중복되는데, 이는 유개식Ⅱ유형에서는 대각부 높이가 형식분류의 속성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4형식은 대각의 높이 1.6cm 이하에 분포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1) 무개식 단각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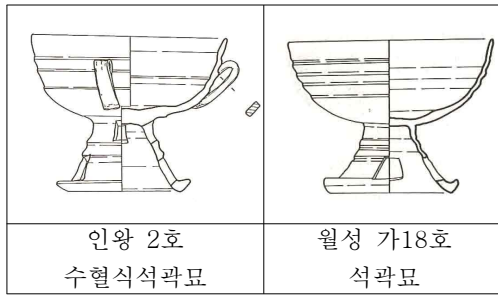
삽도 13. 무개식 1형식

1형식 : 대각단 형태는 외반형이다. 대각에 2단 또는 하1단의 투창이 있다. 투공이 있는 것도 일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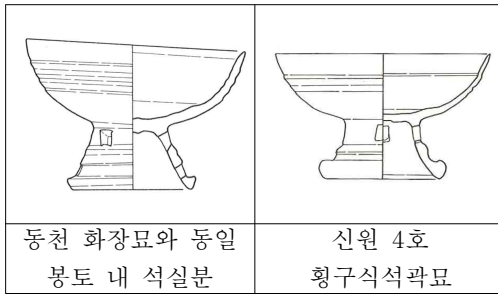
- ◎ 2단 투창인 경우 배신부에 파수의 유무가 모두 확인된다.
- ◎ 하1단 투창인 경우 배신부에 돌대의 유무가 모두 확인된다.
- ◎ 대각의 윗지름은 좁고, 각 단의 투창 개수는 3-4개이다.

2형식 : 대각단 형태는 상향형이다. 2단과 상1단의 경우 투창이 있고, 하1단의 경우 대각에 투창 또는 투공이 있다.

- ◎ 2단 투창인 경우 배신부에 파수의 유무가 모두 확인된다.
- ◎ 하1단 투창인 경우 배신부에 돌대의 유무가 모두 확인된다.
- ◎ 대각의 윗지름은 좁고, 각 단의 투창, 투공 개수는 2-3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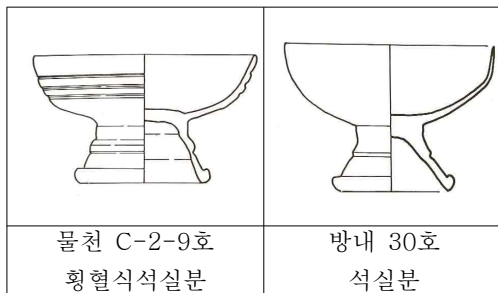
삽도 14. 무개식 2형식



삽도 15. 무개식 3형식

3형식 : 대각단 형태는 권형이다. 하1단의 경우 대각에 투창 또는 투공이 있고, 2단과 상1단의 경우 투공이 있다.

- ◎ 2단 투공인 경우 배신부에 퇴화된 파수의 유무가 모두 확인된다.
- ◎ 대각의 윗지름은 좁은 것과 넓은 것이 모두 확인된다.
- ◎ 각 단의 투창, 투공 개수는 2-3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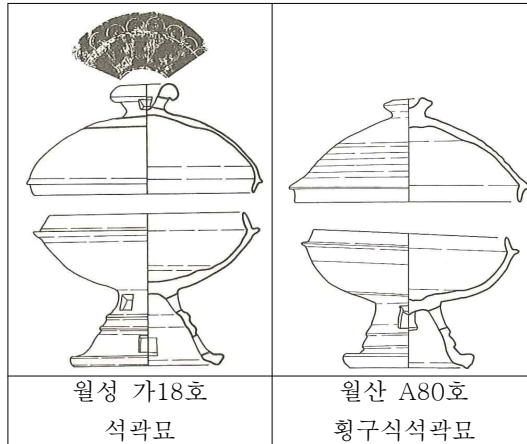
삽도 16. 무개식 4형식

4형식 : 대각단 형태는 권형이다. 대각에 투창이나 투공이 없다.

- ◎ 배신부에 돌대의 유무가 모두 확인된다.

◎ 대각의 윗지름은 좁은 것과 넓은 것이 모두 확인된다.

2) 유개식 I 단각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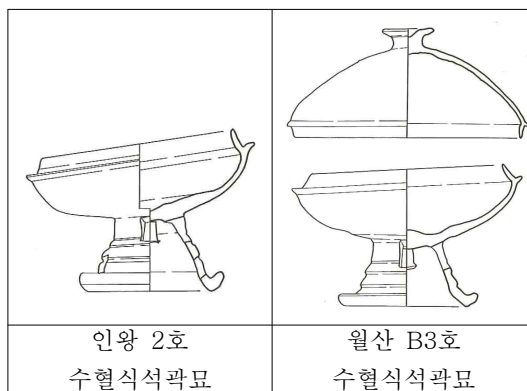


삽도 17. 유개식 I 1형식

1형식 : 대각단 형태는 외반형이다. 대각에 2단 또는 상1단의 투창이 있다. 투공이 있는 것도 일부 확인된다.

◎ 구연부의 길이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짧다.

◎ 대각의 윗지름은 좁고, 각 단의 투창, 투공 개수는 2-4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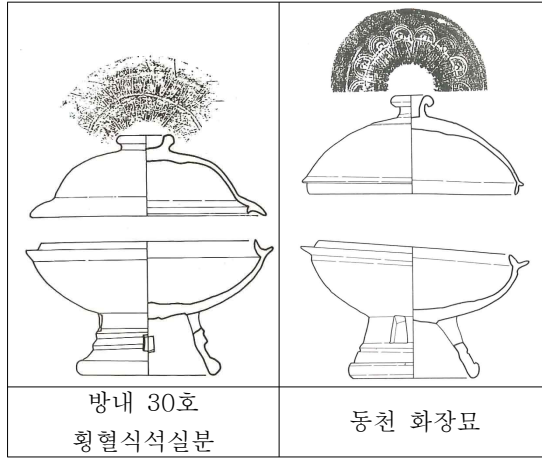
삽도 18. 유개식 I 2형식

2형식 : 대각단 형태는 상향형이다. 상1단의 경우 투창이 있고, 2단의 경

우 대각에 투창 또는 투공이 있다.

◎ 구연부의 길이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짧은 것과 길게 발달한 것이 모두 확인된다.

◎ 대각의 윗지름은 좁고, 각 단의 투창, 투공 개수는 2-4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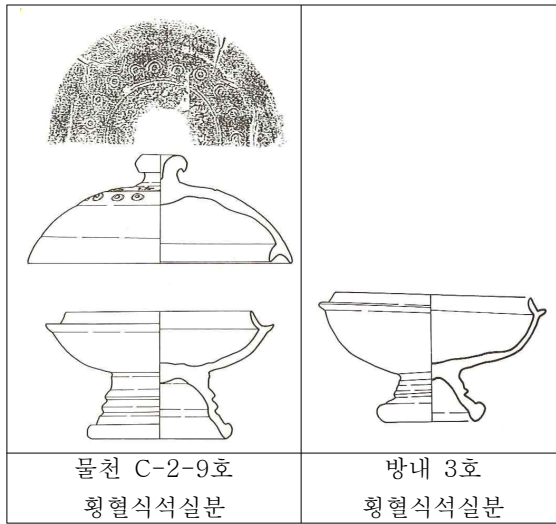
삽도 19. 유개식 I 3형식

3형식 : 대각단 형태는 권형이다. 2단과 상1단의 투창 또는 투공이 있다.

◎ 구연부의 길이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짧은 것과 길게 발달한 것이 모두 확인된다.

◎ 대각의 윗지름은 좁은 것과 넓은 것이 모두 확인된다.

◎ 각 단의 투창, 투공 개수는 2-3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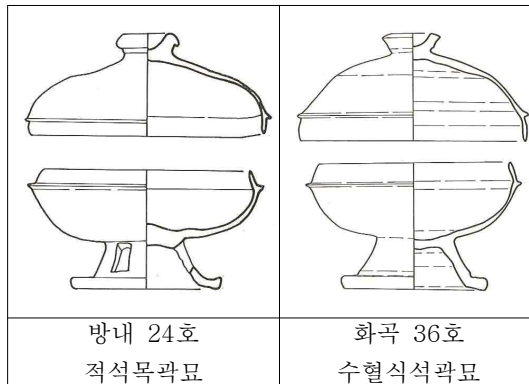


삽도 20. 유개식 I 4형식

4형식 : 대각단 형태는 권형이다. 대각에 투창이나 투공이 없다.

- ◎ 구연부의 길이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길게 발달한다.
- ◎ 대각의 윗지름은 좁은 것과 넓은 것이 모두 확인된다.

3) 유개식Ⅱ 단각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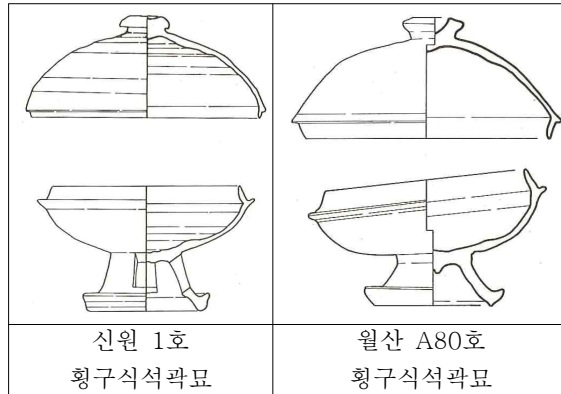


삽도 21. 유개식Ⅱ 1형식

1형식 : 대각단 형태는 외반형이다. 대각에 투창이나 투공이 있는 것, 없는 것이 모두 확인된다. 대각의 높이는 1.6cm 이상이다.

- ◎ 구연부의 길이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짧다.

◎ 대각의 윗지름은 좁고, 각 단의 투창, 투공 개수는 3-4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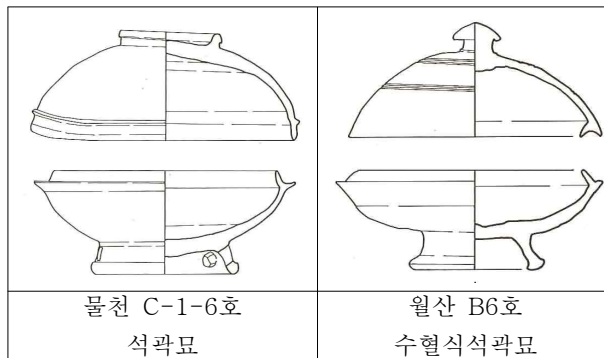


삽도 22. 유개식Ⅱ 2형식

2형식 : 대각단 형태는 상향형이다. 대각에 투창이나 투공이 있는 것, 없는 것이 모두 확인된다. 대각의 높이는 1.6cm 이상이다.

◎ 구연부 길이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짧은 것과 길게 발달한 것이 모두 확인된다.

◎ 대각의 윗지름은 좁고, 각 단의 투창, 투공 개수는 2-4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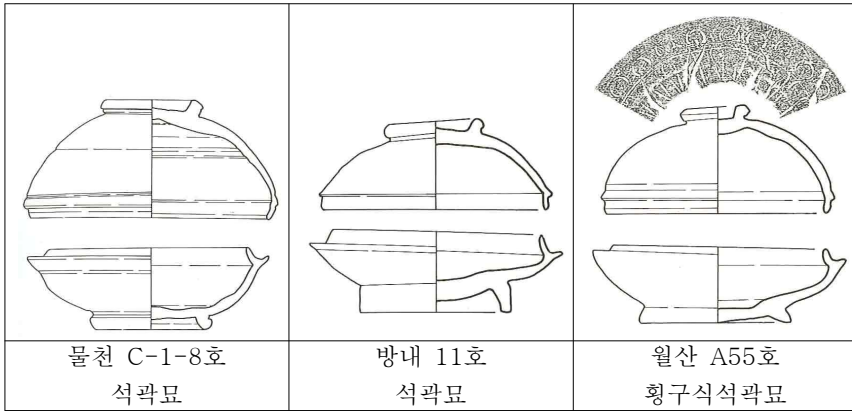


삽도 .23 유개식Ⅱ 3형식

3형식 : 대각단 형태는 권형이다. 대각에 투창이나 투공이 있는 것, 없는 것이 모두 확인된다. 대각의 높이는 1.6cm 이상이다.

◎ 구연부 길이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짧은 것과 길게 발달한 것이 모두 확인된다.

- ◎ 대각의 윗지름은 좁은 것과 넓은 것이 모두 확인된다.
- ◎ 각 단의 투창, 투공 개수는 2-3개이다.



삽도 24. 유개식Ⅱ 4형식

4형식 : 대각단 형태는 권형, 편평형, 내경형이 있다. 대각에 투창이나 투공이 없다. 대각의 높이는 1.6cm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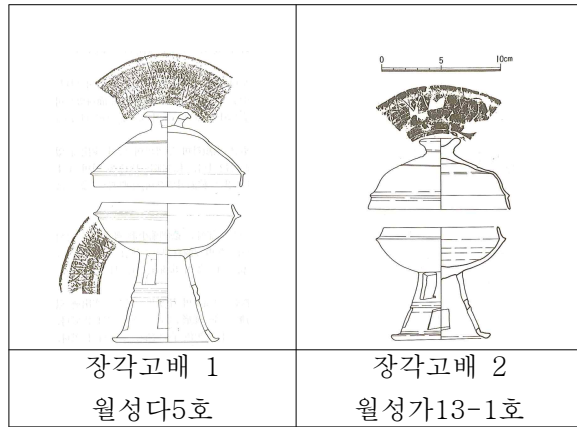
- ◎ 구연부의 길이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길게 발달한다.
- ◎ 대각의 윗지름은 넓다.

4. 공반유물

단각고배와 공반하는 유물로는 이단투창 장각고배, 일단투창고배, 부가구연장경호, 직구호, 배, 대부완, 유개식발 등이 있다. 특히 고배류나 부가구연장경호에 대한 연구성과는 단각고배의 상대서열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1) 이단투창 장각고배

배신부에 비하여 대각의 높이가 더 높은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기고 10cm 이상의 것을 ‘장각고배 1’로, 10cm 미만의 것을 ‘장각고배 2’로 명명하였다. 월성로고분군의 경우 장각고배 1과 2가 모두 출토된 가1호는 6세기 초로, 장각고배 2만 출토된 가18호·나6호·다10호는 6세기 전반 이후로 각각 편년하고 있다⁶⁴⁾. 대각단의 형태는 외반형이 주로 확인된다.



삽도 25. 이단투창 장각고배의 분류

2) 일단투창고배

배신부와 대각의 높이는 대각이 더 높은 것과 동일한 것이 모두 확인되며⁶⁵⁾ 투창의 크기는 약 2.5cm 이상으로 단각고배의 투창보다 큰 편이다. 대각단의 형태는 외반형이 주로 확인된다.



삽도 26. 일단투창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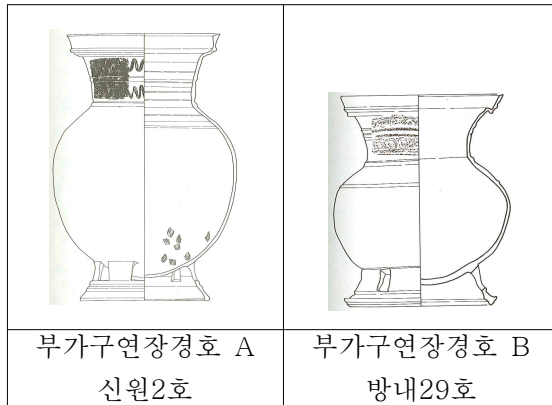
3) 부가구연장경호

6세기 대부터 출현하는 기종으로 동체부의 형태, 경부와 동체의 높이비 등에 의해 분류한 연구가 있다⁶⁶⁾. 먼저 기고는 20cm 이상으로 높고 동체부의 형태가 구형이며 경부의 높이가 동체에 비해 낮은 것을 ‘부가구연장경호 A’로, 기고 20cm 미만이며 동체부의 형태는 장타원형, 경부와 동체의 높이비가 비슷할 정도로 경부가 길어진 것을 ‘부가구연장경호 B’로 각각 명명하였다.

64) 김용성,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2009, p. 98의 표 5.

65) 성립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07, p.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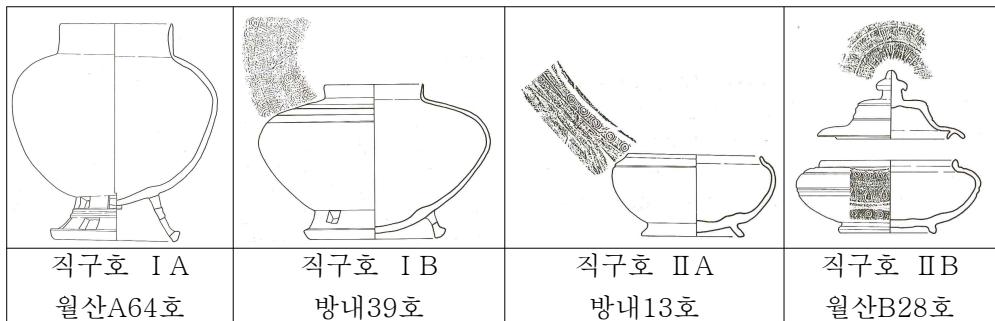
66) 윤상덕, 앞의 논문, 2001, pp. 228-229.



삽도 27. 부가구연장경호의 분류

4) 직구호

직구호는 동체부의 형태와 구경에 의해서 구분되는데⁶⁷⁾ 기고는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구경은 좁은 것(I)에서 넓은 것(II)으로, 동체부의 형태는 타원형(A)에서 장타원형(B)으로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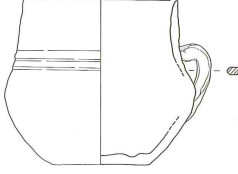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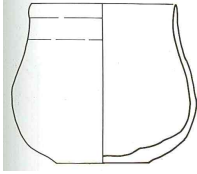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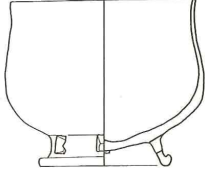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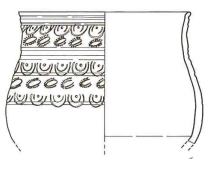
삽도 28. 직구호의 분류

5) 배

컵과 같은 기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적석목곽묘 단계부터 횡혈식석분까지 출토된다. 이른 시기에는 대각 또는 파수가 부착되어 있는데 파수는

67) 윤상덕, 위의 논문, 2001. pp. 222-225.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대각은 낮아진다.

			
과배 인왕1호	배 방내46호	대부배 월산B11호	인화문 배 물천C2-9호

삽도 29. 배의 분류

6) 대부완

대부완은 무개식 단각고배와 유사하나 구경 12cm 이상 또는 신부의 높이가 5cm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더 큰 편에 속한다. 대각이 높은 것을 ‘대부완 A’, 굽이 부착된 것을 ‘대부완 B’로 구분하였다. 대부완 A는 다시 구연부가 직립하는 것을 a, 외절하는 것을 b로 나누었는데 직립에서 외절로 변화되어 간다⁶⁸⁾.

		
대부완 Aa 월산B20호	대부완 Ab 물천C2-9호	대부완 B 방내40호

삽도 30. 대부완의 분류

7) 유개식발

68) 김종만, 앞 논문, 1990.

유개식발은 적석목곽묘 단계부터 황혈식석분까지 출토되는데, 구경에 비해 동체부의 높이가 더 큰 것으로 구연부에 뚜껑받이턱이 확인된다. 이른 시기에는 연질소성이 주류를 이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질로 변화하고, 파수나 대각이 부착된 것, 평저에서 파수가 사라지고 굽이 부착된 것으로 변화한다.

		
<p>연질유개식발 월성가1호</p>	<p>유개식발 월산A63호</p>	<p>대부유개식발 물천C2-12호</p>

삽도 31. 유개식발의 분류

지금까지 분류한 단각고배의 각 형식과 다른 기종 간의 선후관계와 공반 관계를 출토 양상에 따라 속성분석표로 정리하였다(표 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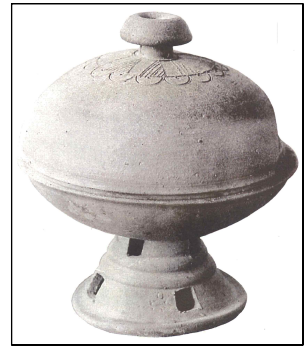
IV. 편년 및 단계설정

앞 장에서 단각고배의 대각단 형태와 투창·투공의 배치여부를 중심으로 3개의 유형마다 각 4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6-7세기 대 고분, 고신라기와, 황룡사지, 인화문토기 등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경주지역 고분 출토 단각고배의 형식별 편년을 설정하고, 시기적 특징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1. 편년

1) 보문리부부총⁶⁹⁾

경주시 명활산 서쪽의 보문리고분군 중 북서단 가까이 능선의 상부에 있는 고분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어 간략하게 보고된 바 있다. 조사결과 고분은 남분과 북분으로 구성된 표형분으로 확인되었다. 북쪽은 적석목곽분으로 남자의 무덤이고, 남쪽은 횡혈식석실분으로 여자의 무덤이었다. 이 고분은 선축된 북분과 후축된 남분이 연이어서 축조되어 경주지역의 묘제가 적석목곽분에서 석실분으로 변천하는 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북분은 단독곽식의 적석목곽분으로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며, 목곽 내부에는 머리 측인 남동쪽에 다량의 유물을 부장하였다. 출토유물은 금동관편, 금제태환이식 등의 장신구와 삼엽문환두대도 등 철제품 이외에 대부장경호 1점과 유개식 I 단각고배·뚜껑 세트 1점이 있다. 단각고배의 뚜껑 문양은 그은 삼각집선문+그은 반원점문이 시문되었다. 여자무덤 출토 뚜껑에서도 그은 삼각집선문+그은 반원점문이 확인된다⁷⁰⁾. 보문리 부부총의 축조 연대는 6세기 중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⁷¹⁾.



삽도 32. 보문리부부총 남자무덤 출토 유개식 I 2형식 단각고배

69) 차순철, 경주 보문동 고분군 축조집단에 대한 검토, 『慶州文化研究』 第7輯, 2005, pp. 115-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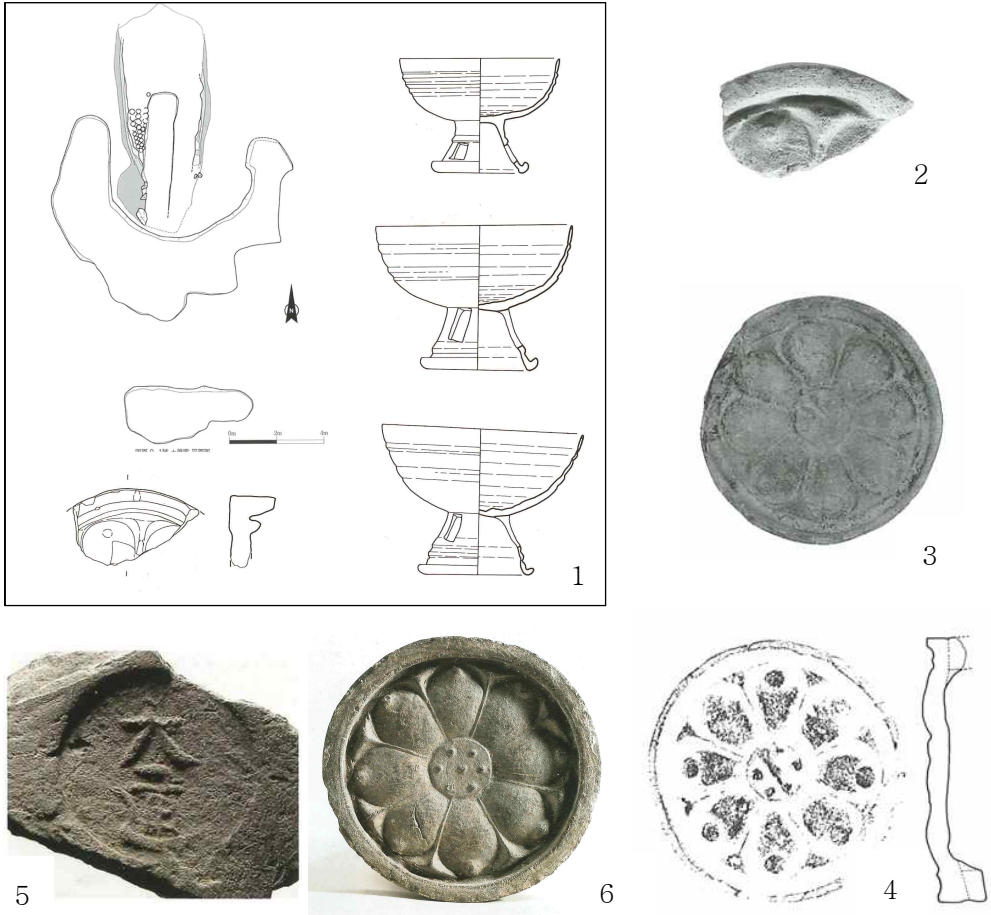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3, 1916, 도판 1125~1159.

70) 조선총독부, 위 책, 1916, 도판 1167.

71) 홍보식, 앞의 책, 2003, p. 33.

이 유개식 I 단각고배의 대각단은 상향돌출형이며 대각윗지름이 좁고 4개의 투창이 2단으로 배치된 형태로 유개식 I 2형식에 해당된다(삽도 32).

2) 손곡동·물천리유적 B지구 1호요지⁷²⁾



삽도 33. 손곡동·물천리유적 B지구 1호요지 출토 무개식 2형식단각고배 및 고식 연화문수막새편(1·2), C-I-3지구 51호수혈 출토 고식 연화문수막새(3·4), 백제 대통사지 출토 ‘大通’銘 인장과 및 연화문수막새(5·6)

경주시 천북면의 경마장예정부지에서 발굴조사 중 확인되었다. 얇은 반구형 구릉의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하며, 유구의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그러나 소성부의 잔존한 양쪽 요벽의 흔적이 일부 잔존하고 있고, 소

72) 慶州캠퍼스博物館·韓國馬事會, 앞의 보고서, 2002.

성부의 서벽에 붙어서 무개식 단각고배 23점이 나란하게 배열되어 소성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는 1호 요 최후의 조업품으로 판단된다. 회구부(灰丘部)는 연소부의 아래 경사면을 따라 간격을 두고 2기가 확인되었다. 1차 회구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배류, 토기 성형법으로 만든 평기와가 주류를 이루며 고식 연화문수막새편이 1점 확인되었다. 따라서 1호의 성격은 신라 초기의 와도겸업요(瓦陶兼業窯)로 추정된다.

이 고식연화문수막새는 완형이 아닌 편이 상태이지만 C-I-3지구 53호 수혈 등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예가 있고, 경주 월성해자⁷³⁾, 내남 화곡지구 생산지유적⁷⁴⁾, 안강 육통리 와요지⁷⁵⁾ 등에서 출토예가 확인되어 전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막새는 ‘백제 대통사식 연화문수막새’로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백제지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공주 대통사의 창건기와로 간주되고 있다⁷⁶⁾. 그 연대는 중국 남조 양무제의 연호인 大通 元年 근거로 527년이 된다. B지구 1호요지 출토의 수막새는 백제 대통사지 연화문수막새(6세기 전반)와 문양적으로 동일하나 1호요지 출토의 것은 드림부와 기와부의 접합기법이 분할절지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대통사지 출토의 것과는 차이를 보이므로 신라에서 자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후행하는 6세기 중엽 또는 6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인된 단각고배는 모두 무개식 2형식으로 대각단은 상향돌출형이며 대각윗지름이 좁고 3개의 투창이 1단으로 배치되어 있다(삽도 33).

3) 황룡사지⁷⁷⁾

73)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 1990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해자 발굴보고서 II』, 2004.

74)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부지내 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자료, 2006.

75) 金誠龜, 「百濟·新羅の瓦窯」, 『佛敎藝術』, 1993.

7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의 미술』,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4, 2007, p.373.

77) 김종만, 앞의 논문, 199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4.

최병현, 앞의 논문, 1984.

최병현, 앞의 논문, 1987.

경주시 구황동에 위치하며, 신라의 호국사찰로 세워진 국가적 大刹이다. 황룡사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창건연대가 553년이고, 566년에 완성되었다. 『삼국유사』에는 569년에 가람이 완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6세기 중엽에 창건(1차가람)된 것으로 된다. 또한 『삼국유사』에 진흥왕 35년(574) 장육삼존이 鑄成되고 10년 뒤인 진평왕 6년(584)에 금당이 건립(2차가람)되었다고 전한다. 이후 황룡사는 고려시대인 1238년 몽고병란에 의해 폐사되었다. 이와 같이 창건연대가 분명하고 황룡사 초기의 유구들의 축조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현재의 황룡사지에 대해서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8차에 걸쳐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늪지를 메워 황룡사를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발굴조사 결과, 유적 최하층이 빨층으로 확인되어 역시 문헌기록과 부합하였다⁷⁸⁾. 황룡사지에서는 적석목곽분 단계의 이단투창의 장각고배는 출토되지 않았는데 이곳이 본래 늪지였음을 감안하면 황룡사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불모지였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최병현은 황룡사의 1·2차가람과 관련하여 빨층, 대지축토층, 1차가람 기초유구 등에서 출토된 유물에 각각 553년 이전, 569년과 같은 연대를 부여하였는데, 보고서에 각 유물의 평면적 출토위치와 층위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⁷⁹⁾.

따라서 아래에서는 황룡사지 빨층 및 대지축토층과 같이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단각고배만을 대상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형식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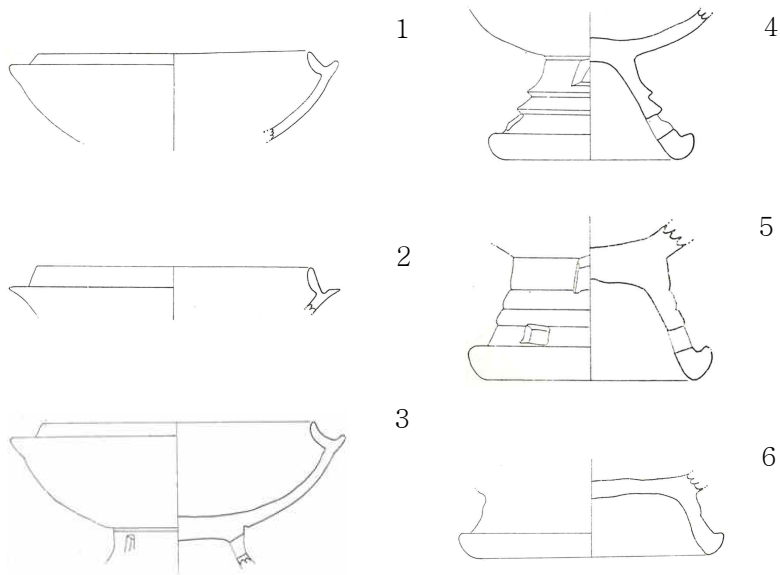
가. 빨층 출토 단각고배

동측남회랑지와 동회랑지에 설치한 토층탐색트렌치에서 각각 출토된 유개식 단각고배의 구연부편 2점은 구연이 내경하고 뚜껑받이턱이 발달한 형태이다(삼도 34-1·2).

나. 대지축토층 출토 단각고배

7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앞의 보고서, 1984.

79) 홍보식, 2003, 신라 후기 고분문화 연구, 춘추각, pp.9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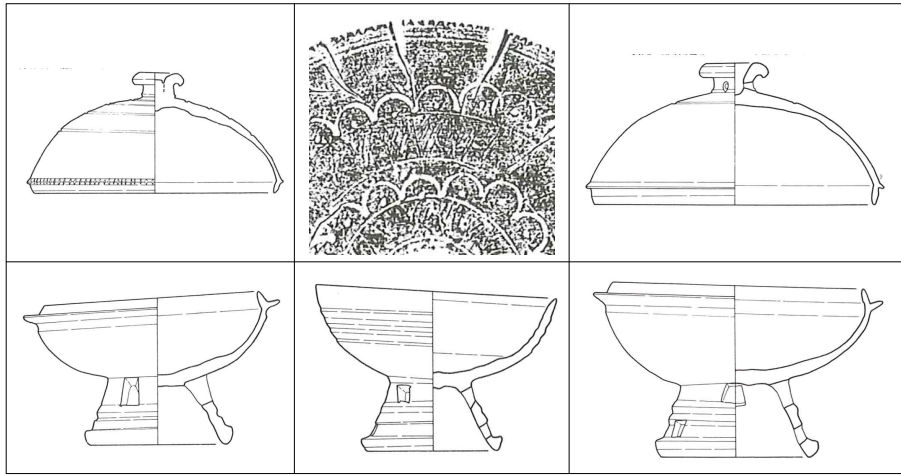


삽도 34. 황룡사지 뿔층(1·2), 대지축토층(3~6) 출토 단각고배

서측남회랑지에 설치한 토층탐색트렌치에서 출토된 유개식 단각고배로 대각이 결손되었다. 구연은 내경하며 뚜껑받이턱이 발달하였다. 대각 윗부분에 투공으로 보이는 흔적이 3개 남아 있다(삽도 34-3). 강당동편건물지의 토층탐색트렌치에서 출토된 단각고배로 배신 일부와 대각이 남아 있다. 대각윗지름이 좁고, 대각 중위에 2줄의 돌대를 돌아가고 그 상하에 2개씩의 방형투창을 교차되게 배치시켰다. 대각단은 상향돌출되었다(삽도 34-4). 1차가람 동측남회랑지의 토층탐색트렌치에서 출토된 단각고배로 대각이 남아 있다. 대각윗지름이 넓고, 대각 중위에 2줄의 얇은 돌대가 돌아가고 그 상하에 3개씩의 방형투창을 교차되게 배치시켰다. 대각단은 상향돌출되었다(삽도 34-5). 강당동편건물지의 토층탐색트렌치에서 출토된 단각고배로 대각이 남아 있다. 대각윗지름은 넓고, 대각에 돌대가 없는 유개식Ⅱ유형이다. 대각단은 상향돌출되었다(삽도 34-6).

뿔층 출토 단각고배의 생산 및 사용의 하한시기는 553년 이전으로, 대지축토층 출토 단각고배는 569년 이전으로 한정할 수 있어 6세기 중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내경하는 구연부에 비해 뚜껑받이턱이 발달한 배신부편은 유개식 단각고배의 것이고, 대각편의 단부는 상향돌출형으로, 특히 유개식Ⅱ 2형식의 단각고배로 분류된다.

4) 동천동 화장묘⁸⁰⁾



삽도 35. 동천동 화장묘 출토 유개식 I 3형식 단각고배 및 뚜껑에 시문된 문양(좌·우, 중앙 상단), 동일봉토 내 석실분 출토 무개식 3형식 단각고배(중앙 하단)

동천동 화장묘는 소금강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며, 1986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긴급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봉토 내에서 파괴된 석실분 1기의 호석부, 묘도로 추정되는 부분과 함께 소형의 석곽이 확인되었다. 석곽은 서남쪽 모서리가 유실되었지만 개석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유물도 도굴되거나 이동되지 않은 채로 출토되었다. 보고자에 따르면 석곽 내 화장묘가 동일 봉토 내의 석실분보다 선축될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하고 있다⁸¹⁾. 석곽 내부의 남쪽벽에 붙여 뚜껑이 조합된 합 1점을 중심으로 유개식 I 3형식의 단각고배 5점을 서쪽과 북쪽에 둘러서 배치하였다. 또한 동일봉토 내 석실분의 추정 묘도부에서 무개식 3형식의 단각고배 1점이 출토되었다. 유개식 I 3형식의 단각고배는 대각에 2단과 상1단의 투창이 3개씩 배치되어 있고 대각단은 권형이다. 뚜껑에는 그은 삼각집선문과 그은 반원점문이 시문되어 있다. 무개식 3형식의 단각고배는 대각에 2단의 투공이 3개씩 배치되어 있고 대각단은 권형이다(삽도 35).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동천동 와총 출토 직구호가 있는데, 동천동 화장묘 출토 유개식 I 3형식 단각고배의 뚜껑 중 이중 시문된 삼각

80) 국립경주박물관, 앞의 글, 1995.

81) 국립경주박물관, 앞 책, 1996, pp. 152-153.

집선문+반원점문과 직구호의 견부에 시문된 문양의 배치가 동일하다. 먼저 동천동 화장묘의 것은 모두 굵기 수법인 반면, 동천동 와총의 것은 그은 삼각집선문+찍은 반원점문으로서 동천동 와총의 것이 후행함을 알 수 있다(삽도 36). 동천동 와총이 6세기 후반 또는 7세기 초로 편년⁸²⁾되므로 동천동 화장묘는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삽도 36. 동천동 와총 출토 직구호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유(鉛釉) 단각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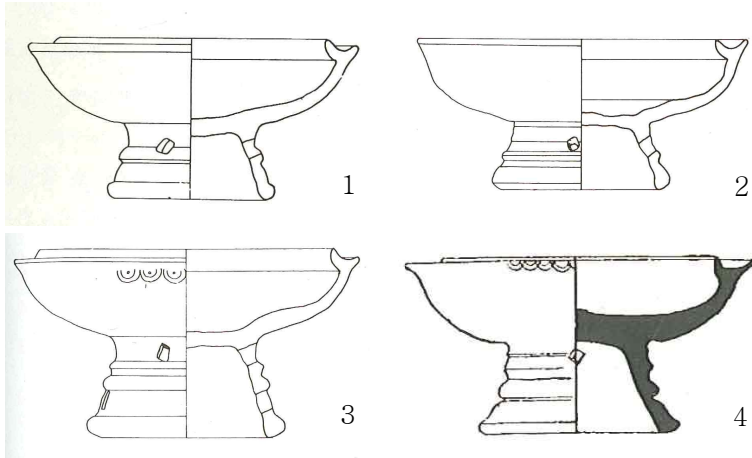


삽도 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개식 연유 단각고배

유개식 I의 단각고배는 3형식으로 3-4개 정도의 투공이 2단으로 뚫려 있다. 유개식 II의 단각고배는 4형식으로 대각이 극히 낮다. 뚜껑은 F형으로 그 아래에 그은 삼각집선문+찍은 이중원문이 시문되어 있다(삽도 37). 본고에서는 인화문 시문의 시작을 7세기 초로 편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형식의 연대는 7세기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형식으로 판단된다.

82) 홍보식, 앞의 책, 2003, p.33.

6) 안압지 및 남산 출토 단각고배



삽도 38. 안압지(1~3) 및 남산(4) 출토 유개식 I 단각고배

안압지 출토 유개식 I 단각고배와 남산 출토 유개식 I 단각고배는 모두 유개식 I 3형식에 속한다. 구연부는 짧아져 뚜껑받이턱과 거의 평행한 단면 y자형이다. 대각윗지름은 넓고 대각에는 2단 또는 1단의 투공이 배치되어 있고 대각단은 권형이다. 공반유물은 수직형문이나 종장연속문이 시문된 인화문토기로 7세기 중엽 또는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이상의 편년 자료를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단각고배의 속성분석표(표 9-15)에 적용하여 형식별 빈도순서배열표를 작성하였다(표 5-7). 이는 먼저 공반유물의 변천, 시문 문양 및 수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단각고배의 속성 중 대각단의 형태, 투창·투공의 배치 여부, 형식 간의 공반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서열을 파악한 후, 편년자료와 동일한 형식에 연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5. 무개식단각고배의 형식별 빈도순서배열표

형식 연대	무개식 (117점/480점, 24.4%)			
	1<외반형> 61점/117점(52.1%)	2<상향돌출형> 39점/117점(33.4%)	3<권형> 13점/117점(11.1%)	4<권형> 4점/117점(3.4%)
6세기 전반	2투창 █ 22점 하1투창 █ 38점 2투공 █ 1점	상1투창 █ 1점 하1투공 █ 2점 2투창 █ 6점 하1투창 █ 23점		
6세기 후반		하1투창 █ 4점 2투공 █ 2점 하1투공 █ 1점	2투공 █ 2점 하1투창 █ 3점 상1투공 █ 5점	
7세기 전반			2투공 █ 2점 상1투공 █ 1점	무 █ 4점
7세기 후반				

표 6. 유개식 I 단각고배의 형식별 빈도순서배열표

형식 단계	유개식 I (167점/480점, 34.8%)			
	1<외반형> 70점/167점(41.9%)	2<상향돌출형> 58점/167점(34.7%)	3<권형> 27점/167점(16.2%)	4<권형> 12점/167점(7.2%)
6세기 전반	상1투공 █ 3점 2투공 █ 5점 2투창 █ 11점 상1투창 █ 29점	2투공 █ 4점 2투창 █ 9점 상1투창 █ 19점		
6세기 후반	상1투창 █ 22점	상1투창 █ 17점 2투창 █ 4점 상1투공 █ 4점 2투공 █ 1점	2투창 █ 2점 2투공 █ 5점 상1투창 █ 6점 상1투공 █ 9점	무 █ 3점
7세기 전반			상1투공 █ 4점 2투공 █ 1점	무 █ 9점
7세기 후반			상1투공 █ (5점) 2투공 █ (1점)	

표 7. 유개식Ⅱ 단각고배의 형식별 빈도순서배열표

단 계	유개식Ⅱ (196점/480점, 40.8%)			
	1<외반형, 대각고 1.6cm이상> 40점/196점(20.4%)	2<상향돌출형, 대각고 1.6cm이상> 37점/196점(18.9%)	3<권형, 대각고 1.6cm이상> 57점/196점(29.1%)	4<권형,편평형,내경형태 각고 1.6cm미만> 62점/196점(31.6%)
6세기 전반	투창 ■ 12점 무 ■ 16점	무 1점 투창 ■ 11점		
6세기 후반	무 ■ 9점 투창 ■ 2점 투공 1점	투창 ■ 13점 무 ■ 10점 투공 ■ 2점	투공 ■ 7점 투창 ■ 8점 무 ■ 38점	내경 무 ■ 11점 권 무 ■ 17점 편평 무 ■ 19점
7세기 전반			무 ■ 3점 투공 ■ 1점	권 무 ■ 12점 내경 무 ■ 2점 편평 무 1점
7세기 후반				

형식별 빈도순서배열표를 나타낸 결과 각 분기(전반/후반)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단각고배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각 형식들이 전함곡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시기적 선후관계를 보여준다. 단, 각 분기 내에서는 선후관계가 아닌 동시기에 공존한 것이지만 순서배열화하기 위해 조열(組列)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개식Ⅰ 2형식의 경우 6세기 전반에 2단투창이 9개, 상1단투창이 19개, 2단투공이 4개 확인되는데(표 6), 형식학적으로 2단투창이 2단투공보다 이른 속성이지만 수량에 따라 조열하였기 때문에 위 표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분기 내에서 속성 간의 선후관계는 없다.

빈도순서배열표를 통해 대각단의 형태와 투창·투공의 배치여부가 유효한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각단은 전기양식토기에서 주로 확인되는 외반형이 가장 먼저 출현한다. 상향돌출형은 6세기 전반과 후반에 걸친 6세기 중엽이, 권형은 6세기 후반이 중심시기가 된다. 유개식Ⅱ 단각고배는 위의 두 속성 이외에도 대각의 높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1·2·3형식은 대각 높이가 1.6cm 이상에 분포하고 있는데 비해서 4형식은 1.6cm 미만에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4형식 중 인화문토기와 공반하는 경

우 1cm 미만의 것도 확인되는 점에서 7세기 전반에는 4형식의 대각 높이가 극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18). 투창과 투공의 비중을 살펴보면, 6세기 전반에는 투창이 압도적이지만 후반에는 투공의 수가 증가하고, 7세기에는 투창은 소멸하고 투공만이 확인된다.

무개식 단각고배는 대체로 6세기 대에 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형식이 총 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6세기 전반까지만 존속한다. 나머지 형식도 7세기 전반에는 점차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멸하고 있다.

유개식 I 단각고배은 공반유물을 볼 때 무개식보다 다소 늦게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빈도그래프는 무개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3형식의 경우에는 7세기 후반까지 존속하고 있다.

유개식 II 단각고배는 무개식·유개식 I 단각고배와 달리 각 형식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면서도 1형식에서 4형으로 갈수록 점차 수량이 증가하며, 시기적으로 6세기 후반에 가장 비중이 높다.

표 8. 경주지역 고분 출토 단각고배의 형식별 편년안

형식 단계	무개식				유개식								
					유개식 I				유개식 II(대각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단계/ 6C 전반	창									창, 무	창, 무		
2-1 단계/ 6C 후반	창, 공	창, 공	창, 공		창, 공	창, 공	창, 공		무, 창, 공	무, 창, 공	무, 창, 공, 1.6cm↑	무, 1.1cm↑	
2-2 단계/ 7C 전반			공	무			공	무			무, (공)	무, 1cm↓	
3 단계/ 7C 후반													

이상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형식별 변화추이를 나타낸 편년안은 다음과 같다(표 8).

2. 단계설정

여기에서는 앞에 제시한 단각고배의 편년안에 대하여 시기적 특징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1) 1단계<6세기 전반>

1단계(도면 1)는 단각고배가 출현하는 시기이며, 장각고배(이단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와 크기는 축소되었으나 대각이 배신부에 비해 여전히 긴 형태의 고배가 존속한다. 이 시기의 토기 대각단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형태는 외반형이다. 단각고배는 전체 부장유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6세기 전반의 이른 시기에 무개식 유형이 가장 먼저 단각화되어 동일한 높이 비를 이룬다. 6세기 전반의 늦은 시기에는 유개식 유형도 단각화가 진행된다. 대각의 형태는 대각의 윗지름이 좁고, 외반형과 상향돌출형의 대각단이 나타난다. 무개식과 유개식 I 은 2단의 투창이 많고, 유개식 II 는 투창과 무투공이 확인된다. 단각고배의 뚜껑은 卜자형 드림부가 많고, 꼭지는 A, B, C형이 주류이다. 문양은 굿기수법의 삼각집선문+원점문이나 무문이 확인된다. 공반유물로는 장각고배1·2형, 일단투창고배, 발형기대, 대부완Aa형, 파배, 대부배(창), 연질유개식발, 직구호 I A형, 부가구연장경호A형, 개배A형, 평저병 등이 있다.

<무개식 1·2형식, 유개식 I 1·2형식, 유개식 II 1·2형식>

2) 2단계<6세기 후반-7세기 전반>

2단계는 단각고배의 제형식이 나타나는 시기로 형식 간의 공반양상도 복잡하고 단각고배의 속성이 다양하게 확인된다. 2단계는 인화문의 유무에 의해서 2-1단계과 2-2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2-1단계(도면 2)에는 장각고배가 점차 소멸하여 단각고배가 전체 부장유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2-2단계(도면 3)에 들어서면 단각고배 뚜껑 등에서 압인수법에 의한 문양이 굿기수법을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2-1단계의 이른 시기에는 모든 유형에서 상향돌출형 대각단이 주류를 이루고, 권형이 출현한다. 유개식에는 외반형이 남아 있지만, 무개식은 외반형이 소멸한다. 대각 형태는 대각윗지름이 좁은 것, 1단투창이 주류이나, 대각윗지름이 넓은 것, 2단·1단투공도 확인된다.

2-1단계의 늦은 시기에는 권형이 주류를 이루고, 상향돌출형은 서서히 소멸한다. 대각의 형태는 대각윗지름이 점차 넓어지고, 대각고는 낮아지는 경향으로 현저해진다. 투창보다 투공의 비율이 증가된다. 유개식Ⅱ에서는 무투공의 비중이 높아지고, 기존의 권형과 함께 편평형, 내경형의 대각단이 출현한다.

2-1단계의 단각고배의 뚜껍은 卜자형 드림부가 주류이지만 F형 꼭지에 반구형 개신, 入자형 드림부를 갖춘 형태가 나타난다. 꼭지는 A, B형이 장각고배의 소멸과 궤를 같이하여 점차 사라지고, C형이 주류이다. 특히 유개식Ⅱ유형은 卜자형 드림부에 E형 꼭지, 무문인 뚜껍과 주로 세트를 이룬다. 문양은 굿기수법의 삼각집선문+원점문이나 무문이 확인되고, 기외면에 예세로 그은 井자형 등의 각종 기호 또는 숫자 같은 흔적도 보인다. 공반유물로는 이른 시기에 장각고배2형, 파배, 대부배(창), 유개식발, 대부명(창) 등이 있고, 늦은 시기에 대부완B형, 개배B형, 완, 대부명(공), 대부단경호 등이 있다. 대부완Aa·Ab형, 배, 직구호 I A·I B형, 부가구연장경호A·B형, 평저병은 6세기 후반의 전시기에 걸쳐 확인된다.

<무개식 2·3형식, 유개식 I 1·2·3·4형식, 유개식Ⅱ 1·2·3·4형식>

2-2단계의 이른 시기에는 모든 유형에서 권형 대각단이 주류를 이루고, 유개식Ⅱ에서는 편평형과 내경형이 증가한다. 대각 형태는 대각윗지름이 넓고 대각 높이가 낮은 안정적인 형태가 많은데, 특히 유개식Ⅱ유형에서는 대각 높이가 매우 낮은 형태가 출현한다. 투창은 사라지고 모든 유형에서 투공과 무투공만 확인된다. 문양은 굿기수법이 존속하며 압인수법과 조합하거나 압인수법만으로 조합된 삼각집선문+원문류가 주류를 이룬다.

2-2단계의 늦은 시기에도 권형 대각단이 주류를 이루는데, 유개식 I 에 비해 무개식과 유개식Ⅱ유형의 출현빈도가 점차 줄어든다. 대각의 형태는 앞 시기와 동일하다. 문양은 압인수법으로서 수직형문이 출현하여 원문류와 조합하거나 단독으로 시문된다.

2-2단계의 단각고배의 뚜껍은 卜자형과 함께 入자형 드림부의 비중이

높아지고, 개신부는凸자형이 많다. 꼭지는 C, E, F형 이외에 D형이 많아지고 G형이 출현한다. 기외면에 예새로 그은 각종 기호 또는 숫자 같은 흔적이 존속한다. 공반유물로는 이른 시기에 대부배(무), 대부유개식발, 직구호 I·B·IIA형, 인화문대부장경호, 등이 있고, 늦은 시기에 인화문배, 인화문대부옹 등이 있다. 대부완Ab·B형, 배, 직구호II B형, 대부병, 파수부옹은 7세기 전반의 전시기에 걸쳐 확인된다.

<무개식 3·4형식, 유개식 I 3·4형식, 유개식II 3·4형식>

3) 3단계<7세기 후반>

3단계(도면 4)는 단각고배가 쇠퇴하는 시기로 무개식과 유개식II가 점차 소멸하고, 유개식 I만 잔존한다. 7세기 후반의 이른 시기에는 전반 늦은 시기의 양상과 유사하며, 7세기 후반의 늦은 시기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단각고배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방내리고분군 내 건천휴계소 신축부지 5호 황혈식석실묘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종장연속문을 시문한 뚜껑과 세트를 이루는 유개식 I 유형의 단각고배이다⁸³). 대각 형태는 대각 윗지름이 넓고, 권형의 대각단, 1단 투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신부는 운두가 낮다. 건천휴계소 부지의 것은 구연부가 다소 길지만, 지산동과 화산리의 것은 구연부와 뚜껑받이턱의 길이가 비슷한 ‘y’자형을 이룬다. 뚜껑은凸자형으로 E형 꼭지에 안턱이 퇴화된入자형 드림부를 가진다. 공반유물로는 대부완B형, 대부병, 파수부옹 등이 있다.

<무개식 4형식, 유개식 I 3·4형식, 유개식II 4형식>

83) 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1995, pp. 55-56, 25-2.

이외에도 동일한 예로는 고령 지산동 4호 석실분(이한상, 앞의 글, 경남고고학연구소·창녕군, 2001, p. 428의 도3-11), 울주 화산리 6호 황구식석곽묘(부산대학교박물관, 『울주화산리고분군』, 1983, pp. 44-45, 圖面 19-4·5) 출토품이 있다.

V. 맺음말

단각고배는 신라토기의 단각화과정에서 출현한 형태로서 후기양식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기적 동일성·단각화 경향, 뚜껑받이턱의 발달, 동일한 높이와 입지름의 분포 등을 근거로 유개식·무개식의 고배 중에서 대각의 단각화 경향이 인지되는 것을 단각고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단각고배들을 뚜껑받이턱과 대각돌대의 유무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단각고배의 변천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대각단의 형태와 투창·투공의 배치 여부를 조합하여 경주지역 고분 출토 단각고배를 분석하였다.

단각고배의 변천양상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장각고배가 축소된 형태의 1단계에는 기고도 비교적 높고 대각은 원추형에 가까운 편이다. 무개식이 가장 먼저 단각화되고, 이어서 유개식 I·II도 단각화된다. 주로 투창이 배치된다. 2-1단계에는 단각고배의 기고는 낮아지면서 대각 윗지름은 넓어져 안정된 형태로 변화한다. 투창의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 투공의 빈도는 늘어나는 경향을 띤다. 2-2단계에는 무개식과 유개식 II의 출현 빈도가 줄어든다. 유개식 II의 대각단은 대부분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화한다. 투창은 사라지고 투공만이 존속한다. 3단계에는 무개식과 유개식 II가 먼저 사라지고, 유개식 I만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점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각고배는 적석목곽묘 말기부터 횡혈식석실분, 인화문토기가 성행하는 시기에 걸쳐 출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적석목곽묘=장각의 이단투창고배, 횡혈식석실분=단각고배'라는 이분법적이고 편견적인 인식과는 달리 단각고배가 횡혈식석실분부터 새롭게 출현되는 것이 아닌 적석목곽묘부터 부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 본 단각고배는 적어도 150년 이상 존속한 기종으로 실로 다양한 대각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간 이에 대한 범주 설정, 선후관계 연구가 전국적으로 출토되는 수량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공반유물, 특히 인화문토기의 편년에 기댄 변천양상 파악만으로는 제약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배의 시간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각단 형태와 함께 투창과 투공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효한 속성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대상으로 삼았던 고분 출토 유물은 6세기 대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7

세기 대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시기 자료의 보고사례가 증가하길 기대하며 단각고배의 제작기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국문>

- 慶南考古學研究所·昌寧郡, 『昌寧 桂城 新羅高銃群』, 2001.
- 慶北大學校博物館·慶南大學校博物館, 『慶州新院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1991.
- 慶州文化財研究所, 『乾川休憩所新築敷地 發掘調查報告書』, 1995.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皇南洞 106-3番地 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 1995.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競馬場豫定敷地 試掘調查報告書』, 1996a.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芳內里古墳群』(出土遺物), 1996b.
- _____, 『慶州芳內里古墳群』(本文), 1997.
- _____, 「慶州 芳內·棗田里 古墳群」,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緊急發掘調查報告書Ⅲ), 1998.
- _____, 『慶州 仁旺洞 古墳群 發掘調查 報告書』, 2002.
- _____, 『慶州月山里遺蹟』, 2003.
- _____, 『慶州蓀谷洞·勿川里遺蹟』-慶州競馬場豫定敷地 A 地區-, 2004a.
- _____, 『월성해자 발굴보고서 Ⅱ』, 2004b.
-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東川洞 收拾調查 報告」, 『國立慶州博物館年報』-1994年度-, 1995, pp. 145~174.
- _____, 『신라인의 무덤』-新羅陵墓의 形成과 展開-, 1996.
-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慶州市, 『慶州市月城路古墳群』, 1990.
-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慶州 千軍洞 避幕遺蹟』, 1999.
- 국립중앙박물관, 『호우총 은령총』-발굴6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6.
- 金大煥, 「嶺南地方 積石木槨墓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2001.
- 金龍星,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예-, 춘추각, 서울, 1998.
- _____, 「6-7세기 신라토기의 제문제 토론문」, 『제10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 2001, pp. 155-156.
- _____,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서울, 2009.
- 金元龍, 「古新羅土器」, 『韓國史論』 15 -한국의 고고학Ⅲ-, 1985a, pp.

299-335.

_____, 「統一新羅土器」, 『韓國史論』 15 -한국의 고고학Ⅲ-, 1985b, pp. 501-540.

_____, 『新羅土器』(韓國의 美術 1), 悅話堂, 서울, 1981.

김재원, 『호우총과 은령총』, 국립박물관, 1964.

金宰賢, 「伽倻故地 出土 短脚高杯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7, 1991, pp. 93-134.

金鍾萬, 「短脚高杯의 歷史性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0.

吉正秀夫, 「일제 강점기 경주 신라고분의 발굴조사」,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pp. 7-20.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 『慶州 皇南洞 376 統一新羅時代 遺蹟』, 2002.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慶州 皇吾洞100遺蹟 I』, 2008.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韓國馬事會, 『慶州 蓀谷洞·勿川里遺蹟(Ⅲ)』
-競馬場 豫定敷地(史蹟 430號)
B地區-, 2002.

文化財管理局·慶州史蹟管理事務所, 『慶州地區 古墳發掘調查報告書』 제1집, 1973.

_____, 『慶州地區 古墳發掘調查報告書』 제2집, 1980.

문화재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197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4.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 1990.

朴普鉉, 「短脚高杯로 본 積石木槨墳 消滅年代」, 『新羅文化』 第十五輯, 1998, pp. 81-99.

釜山大學校博物館, 『金海 禮安里 古墳群 I』, 1985.

_____, 『蔚州 華山里古墳群』, 1983.

聖林文化財研究院,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부지내 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자료, 2006.

_____, 『慶州 花谷里 新羅墳墓群』, 2007.

신미영, 『내가 만드는 도자기 물레성형기법』, 예경, 서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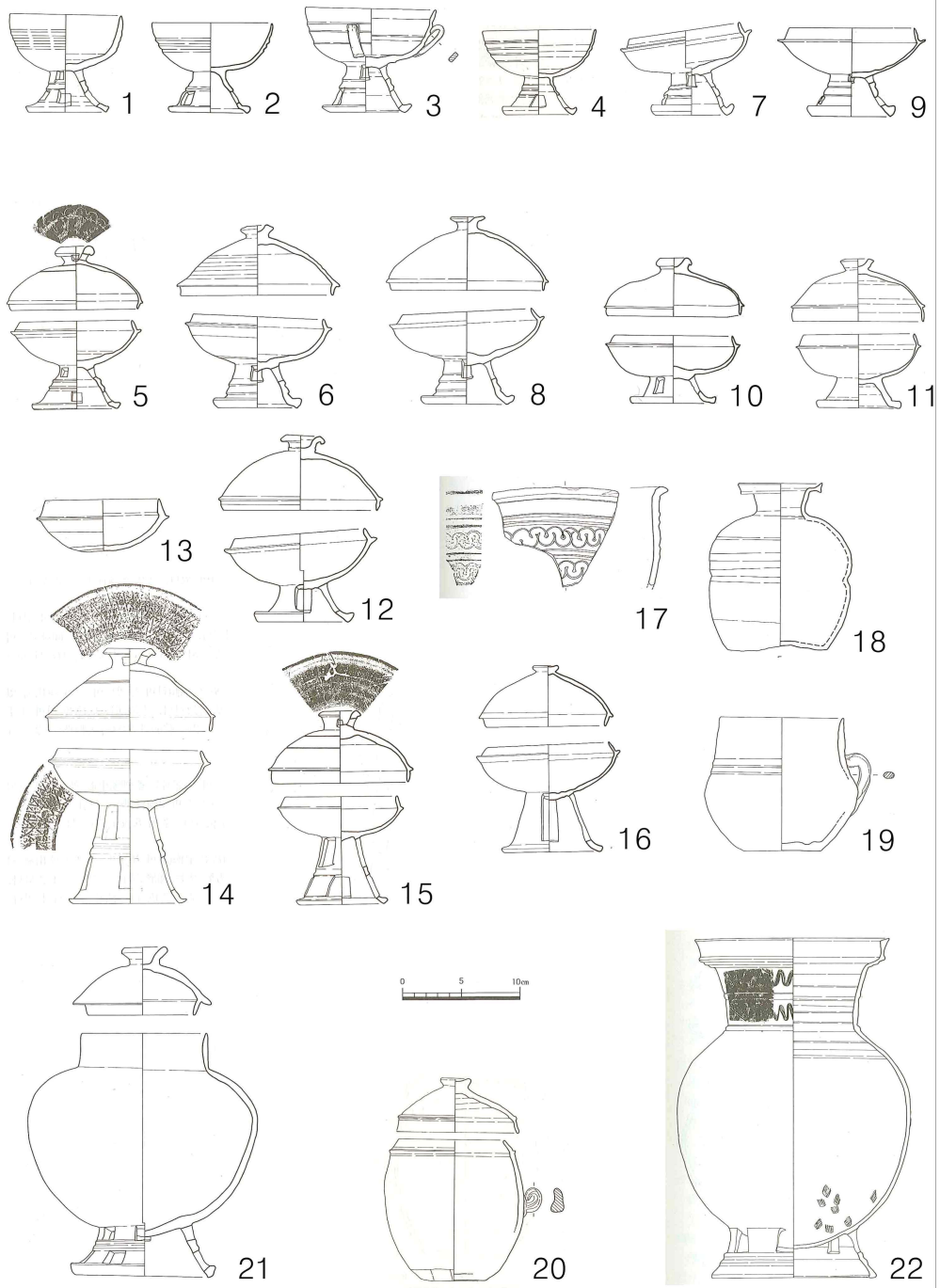
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舍羅里遺蹟 I』, 1999.

- _____, 『慶州 舍羅里 525番地遺蹟』, 2005.
- _____, 「경부고속철도 경주 건설구간내 경주 방내리고분군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41-, 2007. 8.
- 禹順姬, 「慶南地域의 6世紀 土器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 尹武炳, 「V. 注山里古墳群」, 『大清담水沒地區發掘調查報告書』(忠清南道篇), 忠南大學校博物館, 1978, pp. 34-46.
- 尹武炳·朴日勳, 「慶州西岳里石室墳發掘調查」, 『考古學』1, 韓國考古學會, 1968, pp. 77-114.
- 尹相惠, 「6-7세기 신라토기 相對編年 試論」-慶州芳內里古墳群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45, 2001, pp. 207-246.
- _____,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연구현황과 과제」,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통일신라시대고고학』, 2004, pp. 99-115.
- 尹容鎭·朴淳發, 「IV. 考察 2. 土器」, 『慶州新院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慶南大學校博物館, 1991, pp. 63-71.
- 李東憲, 「印花文 有蓋盃 研究」-慶州地域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 考古學科 碩士學位論文, 2008.
- 李相俊, 「손곡동 토기가마(窯)의 類型과 構造的 特徵」, 『年報』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8.
- 李漢祥, 「IV. 考察 2. 6-7世紀代 昌寧地域 土器의 變遷」, 『昌寧 桂城 新羅高銃群』, 慶南考古學研究所·昌寧郡, 2001, pp. 420-436.
- 이희준, 「부여 정림사지 蓮池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 『한국고고학보』31, 1994, pp. 121-135.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3, 1916.
- 차순철, 「경주 보문동 고분군 축조집단에 대한 검토」, 『慶州文化研究』第7輯, 2005, pp. 115-134.
- _____,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경주 신라고분 발굴조사」,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pp. 21-45.
- 崔秉鉉, 「皇龍寺址出土 古新羅土器」, 『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編, 新興印刷, 서울, 1984, pp. 227-262.
- _____, 「新羅後期樣式土器의 成立 試論」,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考古學篇,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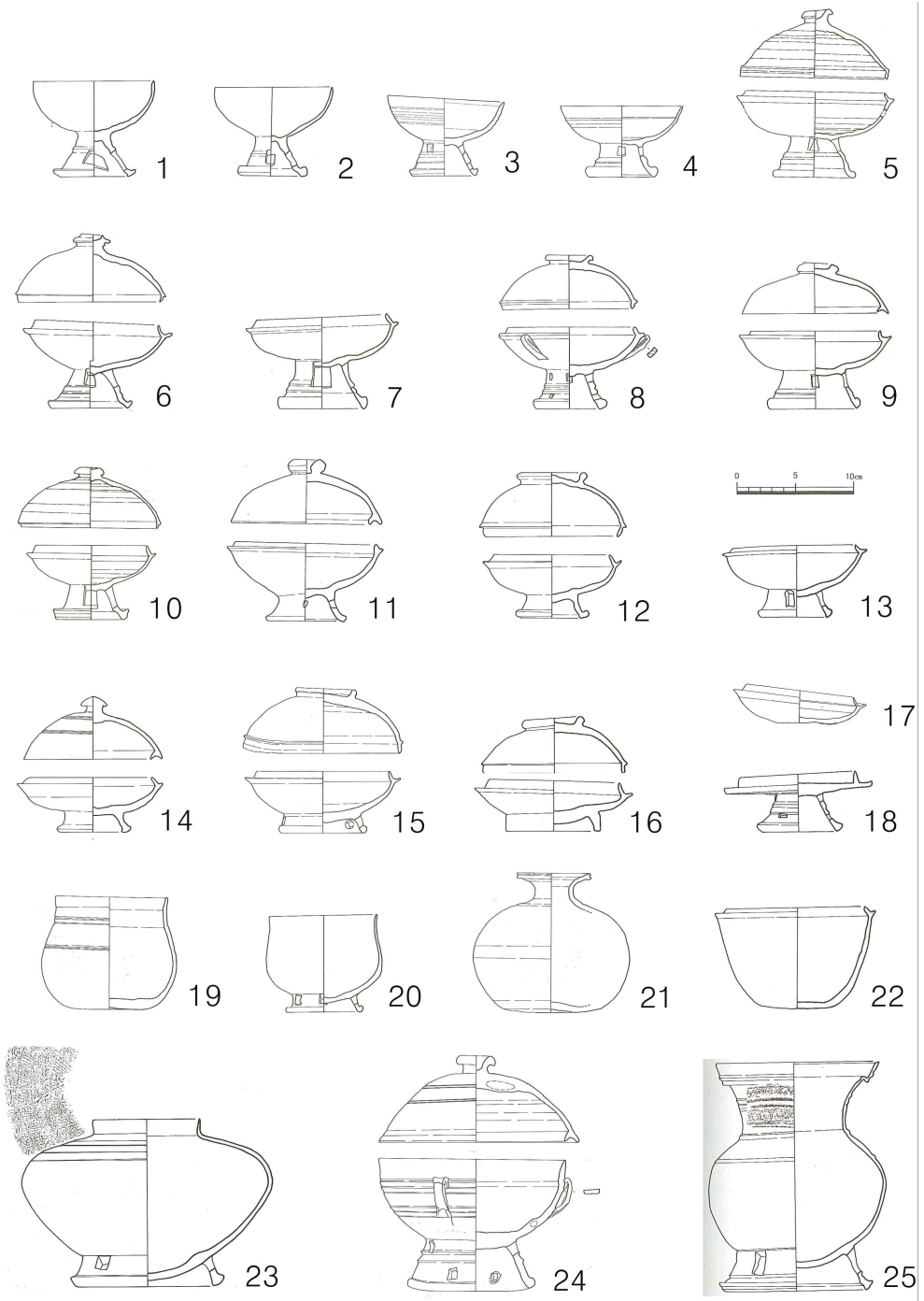
- 編, 一志社, 서울, 1987, pp. 563-596.
- _____,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서울, 1992.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의 미술』,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4, 2007.
-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馬事會, 『慶州 競馬場 豫定敷地 C-I 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1999.
-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慶州市 栗洞 1108番地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2000.
- _____, 『慶州 神堂里 遺蹟』-강변로(4공구) 개설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2009.
- 洪潛植, 「6-7世紀代 新羅土器의 제문제」-편년·양식·확산을 중심으로-, 『제10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 2001, pp. 115-152.
- _____,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서울, 2003.
- _____, 「통일신라토기의 상한과 하한」-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보』 34, 2004, pp. 35-60.

<日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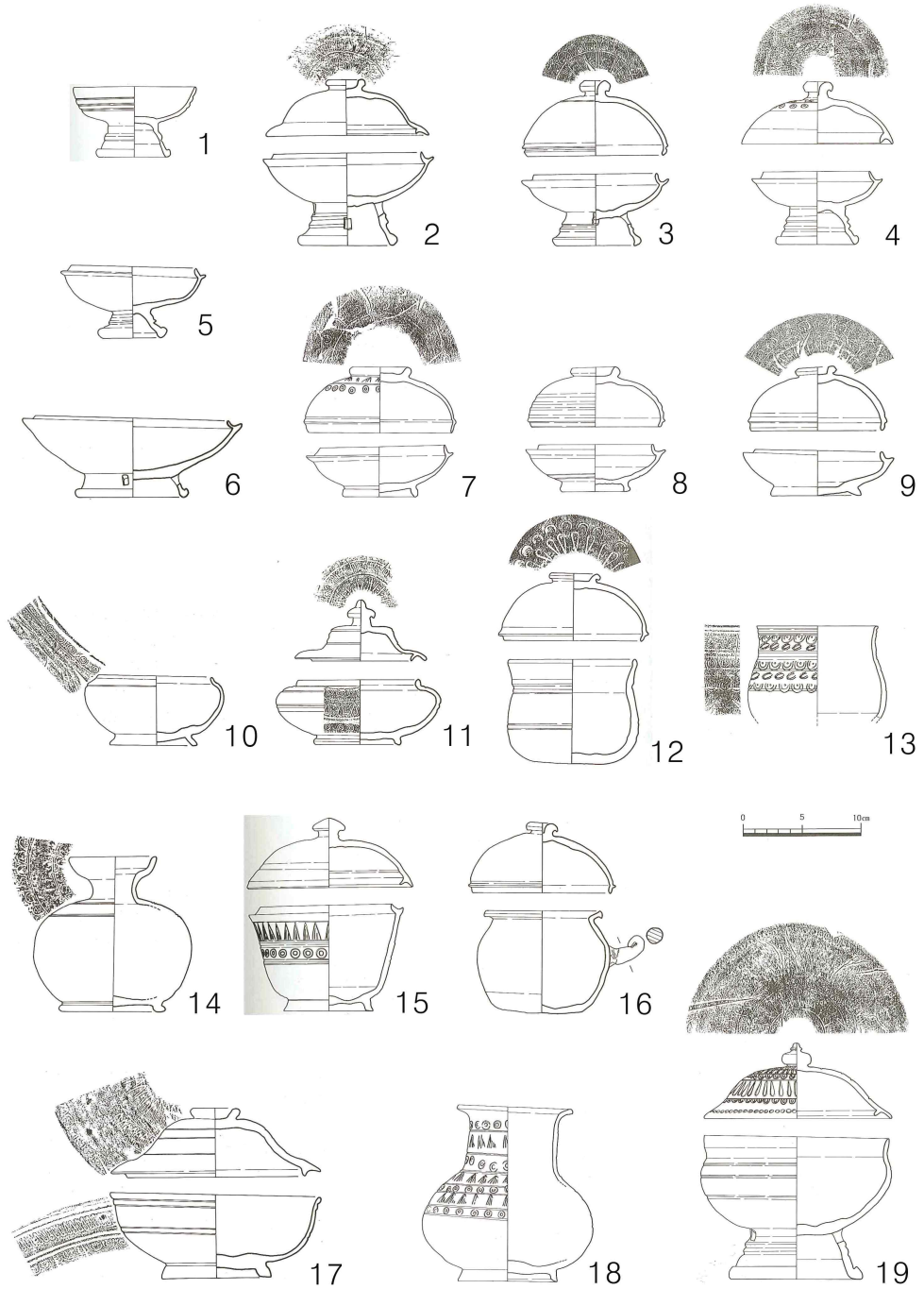
- 宮川禎一,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歴史學と考古學』 高井 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1988, pp. 72-94.
- 金誠龜, 「百濟·新羅の瓦窯」, 『佛教藝術』, 1993.
- 東京國立博物館, 『東京國立博物館圖板目錄』 朝鮮陶磁篇(土器·綠釉陶器), 2004.
- 藤井和夫,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を中心として-, 『神奈川考古』 6, 1978, pp. 121-170.
- 西 弘海, 『土器樣式の成立とその背景』, 1986.
- 有光教一, 「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二冊, 朝鮮總督府, 1937.
- 齊藤忠, 「慶州忠孝里盜掘古墳の調査」, 『昭和十一年度 古蹟調査報告』 第二冊, 朝鮮總督府, 1937.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三, 1916.
- 重見 泰, 「7世紀前後における新羅土器 <有蓋高杯>の形態變化」, 『考古學研究』 51-4, 2005, pp. 109-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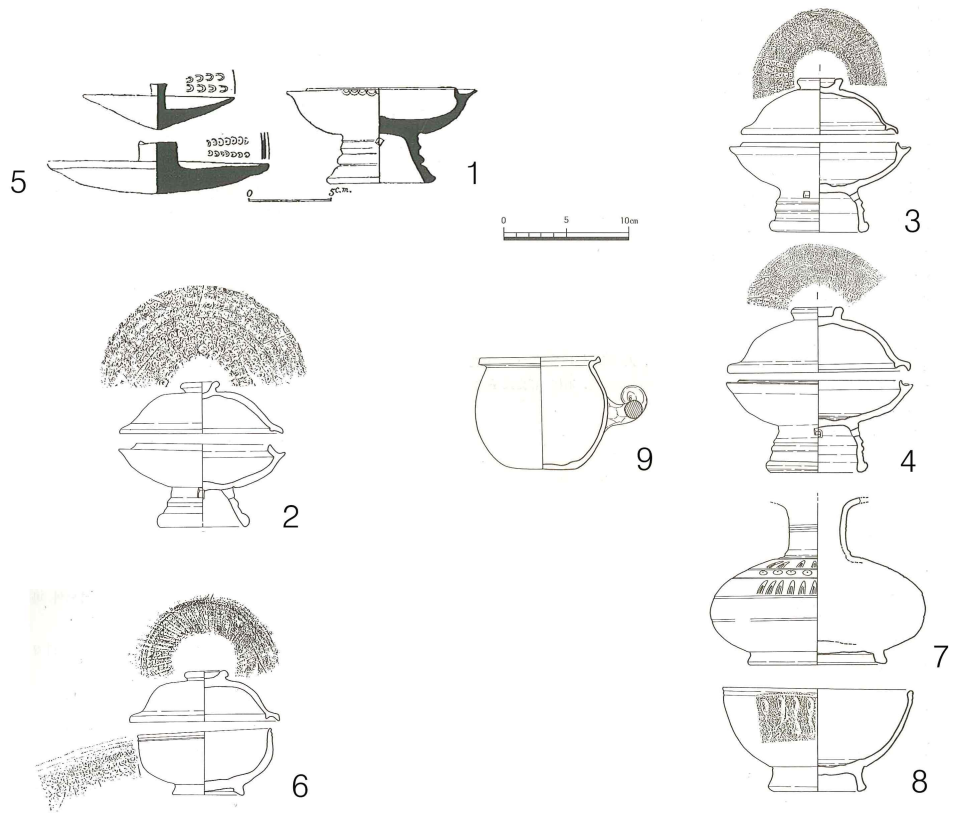
도면 1. 경주지역 고분 출토 유물(1단계) 월성가13-1호(1,15), 방내20호(2), 인왕수2호(3,7), 월성가18호(4,5), 월산A80호(6), 월산B3호(8), 방내27B(9), 방내24호(10), 화곡36호(11), 월산A107호(12), 월성가1호(13,20), 월성다5호(14), 월산A91호(16), 물천C2-9호1차(17), 월산A49호(18), 인왕수1호(19), 월산A64호(21), 신원2호(22)



도면 2. 경주지역 고분 출토 유물(2-1단계) 월산B16호2차(1,2,6), 동천화장묘(3), 신원4호2차(4), 신원1호(5,10), 월산A81호(7), 월산B11호3차(8), 방내11호1차(9,16), 월산A55호1차(11), 월산B20호(12), 방내30호2차(13,22), 월산B6호(14), 물천C1-6호(15,19,24), 신원8호(17), 방내39호2차(18,23), 월산B11호1차(20), 물천C1-14호(21), 방내39호(23) 방내29호(25)



도면 3. 경주지역 고분 출토 유물(2-2단계) 물천C2-9호3차(1,4,13,19), 방내30호3차(2), 월산B28호(3,11,12,16), 방내3호(5), 방내11호2차(6), 물천C1-4호(7), 물천C1-24호(8), 월산A55호2차(9), 방내13호2차(10), 방내7호2차(14), 물천C2-12호3차(15), 방내40호(17), 물천C1-4호(18)



도면 4. 경주 인근지역 출토 유물(3단계) 남산 주변(1,5), 건천휴게소부지5호(2,6), 울주 화산리6호(3,4,7,8,9)

표 9. 월성로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단위 : 점)

묘제 구분	유형	무개식	무개식 추정	유개식 I	유개식 I 추정	소계	비고
	유구명						
적석 목곽묘	가1호	1		1		5기	
	나8호	1					
	다1호			2			
	다2호	1					
	다5호	1					
목곽묘	가9호	1				1기	적석목곽묘?
석곽묘	가13-1호	1			1	5기	
	가15호	2					
	가18호	4		1			
	나6호	6	1	1			
	다10호			1			
옹관묘	다7호	1				1기	
합계		19	1	6	1	12기 27점	

표 10. 인왕동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단위 : 점)

묘제 구분	유형	무개식	무개식 추정	유개식 I	소계	비고
	유구명					
적석 목곽묘	6B호	1			1기	
목곽묘	13B호	1			1기	적석목곽묘?
수혈식 석곽묘	1호	3			2기	
	2호	1	1	1		
합계		6	1	1	4기 8점	

표 11. 화곡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단위 : 점)

묘제 구분	유형	무개식	유개식 I	유개식 II	소계	비고
	유구명					
수혈식 석곽묘	36호			14	3기	
	38호	1				
	40호		5			
합계		1	5	14	3기 20점	

표 12. 월산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단위 : 점)

묘제 구분	유형	무개식	유개식 I	유개식 II	유개식 II 추정	소계	비고
	유구명						
목곽묘	A1호			2		2기	
	A2호	2					
옹관묘	A5호	2				1기	

수혈식 석곽묘	A3호	1				25기	B4호:화 장묘? B12호: 횡구식석 곽묘?
	A9호	1					
	A13호	1		1			
	A18호	2					
	A21호	2					
	A46호	1					
	A49호	1	3				
	A63호	1					
	A64호	1					
	A81호		2	2			
	A84호	2					
	A101호	1					
	A107호	1		3			
	A121호		1				
	A135호	1					
	B2호	2	1				
	B3호	2	7				
	B4호		1				
	B6호			1			
	B8호			2			
B12호		1	3				
B14호	3		3				
B18호			2				
B20호		1	3				
B25호			1				
수혈식 석곽묘 의 제의유 구	A62호	1				1기	
횡구식 석곽묘	A20호	1				7기	B16: 제 의 유 구 유물 포 함
	A55호		2	2			
	A65호	3					
	A80호		1	1			
	A91호		1				
	A92호			4			
B16호	6	6	3				
횡혈식 석실분	B9호	2	1	4		5기	
	B11호		1	3			
	B17호			3	1		
	B26호		1				
B28호		2					
합계		40	32	43	1	41기 116점	

표 13. 망내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단위 : 점)

묘제 구분	유형	무개식	유개식 I	유개식 I 추정	유개식 II	소계	비고
	유구명						
적석 목곽묘	20호	2	1			11기	46호:부 락 유물
	22호		3				

	24호	1			4	포함 ⁸⁴⁾
	25호	3				
	26호		9			
	27A호	4	1			
	27B호	2	11		1	
	29호		3	1		
	31호	2	4			
	46호	4	9		2	
48호	1	1				
적석 목곽묘 의 부곽	21A호	1	4	1		4기 28호: 주 곽 유물 포함
	21B호				1	
	23호		6		2	
	28호		5		1	
석곽묘	4호				3	7기 4호, 19 호, 60호: 횡구식석 곽묘?
	8호				1	
	19호	1	3			
	51호		5			
	53호	1				
	60호		1			
64호	1					
석실분	44호		2		6	1기 횡구식석 실분?, 부곽 유 물 포함
횡혈식 석실분	2호				4	16기 3호:제의 유구 유 물 포함, 30호:부 곽 유물 포함
	3호		1		2	
	5호				4	
	7호		1		2	
	9호				2	
	11호		1		5	
	12호	1			3	
	13호				1	
	16호	1			1	
	18호	1	2		8	
	30호	3	2		8	
	36호	1	1			
	38호				1	
	42호		4		1	
50호		1		4		
67호				3		
횡혈식 석실분 의 부곽	32A호		4			3기 39호: 현 실 유물 포함
	32B호				4	
	39호		6			
합계		30	91	2	74	42기 197점

84) 46호는 적석봉토부가 있고, 목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철제꺾쇠 9점이 출토되어 적석목곽묘가 확실하여 폐기동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매장주체부와 동일 봉토 내의 부곽에서 각각 출토된 유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페이지). 출토유물에서 장각의 이단투창고배와 대각단이 권형인 단각고배가 확인되는 등 전체 유물의 양상에서 시간 차가 인정되어 부곽은 매장주체부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매장주체부와 부곽 출토유물을 구분할 수 없는 예는 44호, 호가 있는데 유물에 확인되는 속성 간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표 14. 신원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단위 : 점)

묘제 구분	유형	무개식	유개식 I	유개식 II	유개식 II 추정	소계	비고
	유구명						
형구식 석실분	1호		1	1		7기	
	2호		5	3			
	3호		1	1			
	4호	1	1	11			
	6호	4	4				
	7호		1	5	1		
	8호		2	11			
합계		5	15	32	1	7기 53점	

표 15. 물천리고분군 내 단각고배 출토 현황

(단위 : 점)

묘제 구분	형식	무개식	무개식 추정	유개식 I	유개식 I 추정	유개식 II	유개식 II 추정	소계	비고
	유구명								
석곽묘	C1-6호					5		15기	
	C1-7호					1			
	C1-8호					1			
	C1-9호	1				2			
	C1-10호	1							
	C1-11호					1			
	C1-12호			1					
	C1-13호					1			
	C1-14호					3			
	C1-16호					2			
	C1-19호					1			
	C1-20호					1			
	C1-23호			2					
C1-24호					1				
C2-13호					2				
석곽묘의 주구	C2-2호	1						1기	
석실분	C1-4호					4		1기	
형혈식 석실분	C1-15호	2		7				3기	C2-9호, C2-12호 : 주구 유물 포함
	C2-9호	3		3	1				
형혈식 석실분의 제의유구	C2-12호		1			2			
형혈식 석실분의 제의유구	C1-5호	5				3	1	1기	현실 내 유물 포함
합계		13	1	13	1	30	1	21기 59점	

표 16. 경주지역 고분출토 무개식 단각고배 순서배열표

단계	형식	속성 묘제 및 유구명		대각단 형태			투창 (투공) 단수			투창 (투공) 개수	대각 윗지름 (기준 4cm)		배신부 과수 부착		개체 수	공반유물	
				의반형	상향 돌출형	권형	투창	투공	무		狹	廣	유	무		단각고배 85)	표지유물
1 단계	1	적석 목곽묘	월성 나8호	●			2			4	●		1耳	1		장각고배1·2, 일단투창고배, 대부연질유개식발, 직구호 I A	
	1?	적석 목곽묘	월성 다2호	-	-	-	2?			4	●			1		장각고배1·2, 일단투창고배, A·C 卜개, 연질유개식발	
	1	적석 목곽묘	방내 27A호	●			2			4	●			4	유 I 1/2 창	장 각 고 배 1·2, A·B·C(투공) 卜개, 소형F1 入개, 연질유개식발, 양이부용	
	1	석곽묘	월성 가13-1호	●			2			4	●			1	유 I 1/2 창?	장각고배2, 개배A, 연질유개식발	
	1	적석 목곽묘	인왕 6-B호	●			2			4	●			1		일단투창고배, C 卜	
	1	석곽묘	물천 C1-10호	●			2			4	●		3耳	1		장각고배2+ C(투공) 卜개(사격자, 점열, 그삼), 연질유개식발,	
	1	수혈 식석곽묘	월산 A18호	●			2			3	●			2		장각고배1·2+ A·B 卜개	
	1	목곽묘?	월성 가9호	●			2			3	●			1		장각고배2, 개배A	
	1?	옹관묘	월성 다7호	-	-	-	2?			-	●		3耳	1		직구호 I A	
	1	목곽묘?	인왕 13-B호	●			2			3	●			1			
	1	적석 목곽묘	월성 가1호	●			2			3	●			1	유 I 2/2 창	장각고배1·2, A·C 卜개, 연질유개식발, 개배A, 대부완Aa, 직구호 I A, 부가구연장경호A	
	1	횡구 식석곽묘	월산 A65호	●			2			3	●		3耳	2		장각고배1·2, 일단투창고배, 파배	
				●			하 1			3	●			1		set-개F 卜개(그반원집)	

85) 단각고배 범례 : 유형 형식 / 투창·투공 배치형태 순으로 표기. 단 유개식II의 4형식의 경우 대각단의 형태가 3가지이므로 대각단의 형태를 병기한다. 예시 1) '유 I 1/2창' 는 유개식 I 유형의 1형식 2단 투창을 뜻함. 예시 2) '유II4편/무' 는 유개식II 유형의 4형식 중 편평형 대각단 투창·투공 없음을 뜻함.

1 단 계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63 호	●			하 1			3	●		●	1	장각고배1,일단투 창고배,파배,유개식 발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46 호	●			하 1			3	●		●	1	장각고배1·2,파배, 개배A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64 호	●			하 1			3	●		●	1	장각고배1·2,일단투 창고배,파배,직구호 I A+ C1入개,연결 유개식발	
	1	수혈 식식 곽묘	화곡 38호	●			하 1			3	●		●	1	일단투창고배,기대, 파배	
	1	적식 목곽 묘	방내 48호	●			하 1			3	●		●	1	유 I 1/상 1창	장각고배2,부가구 연장경호A(그삼+ 그반원점),직구호 I A
	1	적식 목곽 묘	방내 24호	●			하 1			2	●		●	1	유 II 1/창, 유 II 2/창	
	1	횡혈 식식 곽분	방내 30호 1차	●			하 1			2	●		●	1	유 II 1/창	부가구연장경호A
	1	적식 목곽 부곽	방내 21A 호	●				2		3	●	3터		1	유 I 1/상 1창·유 I 2 /상1창	
	1	적식 목곽 묘	방내 20호	●			하 1			3	●		●	2	유 I 2/2 창	장각고배2,A 卜개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21 호	●			하 1			3	●		●	2		장각고배2+ A·B 卜 개,개배A
	1	횡구 식식 곽묘	월산 A20 호	●			하 1			3	●		●	1		장각고배2,파배,B 卜개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84 호	●			하 1			2, 3	●		●	2		장각고배2
	1	목곽 묘	월산 A2호	●			하 1			3	●		●	2		set- 卜개(꼭지결 순),장각고배2+ C 卜 개,연결유개식발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3호	●			하 1			3	●		●	1		set-F1入개,파배, 대부배(창)
	1	수혈 식식 곽묘 제의 유구	월산 A62 호	●			하 1			3	●		●	1		연결유개식발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13 5호	●			하 1			3	●		●	1		파배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9호	●			하 1			3	●		●	1		
	1	옹관 묘	월산 A5호	●			하 1			2	●		●	2		
	1	수혈 식식 곽묘	월산 A13 호	●			하 1			3	●		●	1	유 II 1/무	일단투창고배,A 卜 개,C(부공) 卜개(그 삼)
	1	수혈	월산	●			하			3	●		●	1	유 II 1/창,	파배

	식석 곽묘	A10 7호				1											유 II 2/창	
1	수혈 식석 곽묘	인왕 1호	●			2			3	●			●	2				장각고배1·2, 일단투 창고배, A·C 卜개, 파 배, 연질유개식발, 부 가구연장경호A,
2				●		2			3	●			●	1				
1	적석 목곽묘	방내 25호	●			2			3	●		3耳		1				장각고배2, C 卜개 (선문, 그삼+ 그반원 점), 대부배(창)(그반 원점)+ 卜개(그삼+ 그반원점)
			●			하 1			2	●			●	1				
2				●		2			3	●		3耳		1				
1	석곽 묘	월성 나6 호	●			2			3	●		-	-	1	유 I 1/상 1창		장각고배2, 연질유 개식발	
			●			하 1			3	●			●	3				
1?			-	-	-	-	-	-	-	-	-	-	3耳					1
2				●		하 1			3	●			●	2				
1	횡구 식석 곽묘	월산 B16 호 1차?	●			하 1			2	●			●	3			부가구연장경호A	
2				●		2			3	●			●	1				
2	적석 목곽묘	월성 다5 호		●		2			3	●			●	1				장각고배1·2, 연질유 개식발
2	수혈 식석 곽묘	인왕 2호		●		2			3	●		3耳		2	유 I 2/2 창			파배
2	수혈 식석 곽묘	월산 A10 1호		●		2			3	●			●	1				set-A 卜개, 장각고 배2, 개배A+ A·B 卜 개
1	수혈 식석 곽묘	월산 B14 호	●			하 1			2	●			●	1	유 II 1/창, 유 II 2/창		양이부용+ C 卜개 (그삼+ 그반원점)	
2				●		하 1			2	●			●	2				
1	수혈 식석 곽묘	월산 B3호	●			하 1			2	●			●	1	유 I 1/상 1창, 유 I 2/상1창			
2				●		하 1			2	●			●	1				
2	석곽 묘	월성 가15 호		●		하 1			3	●			●	2				장각고배2, 일단투 창고배, 대부파배, 부 가구연장경호A
2	석곽 묘	월성 가18 호	●			하 1			3	●			●	3	유 I 1/2 창			장각고배2, 일단투 창고배, 연질유개식 발, 부가구연장경호 A
				●		상 1			3	●			●	1				
1	수혈 식석 곽묘	월산 B2호	●			하 1			2	●			●	2	유 I 2/상 1창			파배, 적구호 I A(그 반원점)
2	석곽 묘 주구	물천 C2- 2호		●		하 1			3	●			●	1				대부각배대
2	횡형 식석 실분	물천 C2- 9호 1차		●		하 1			2	●			●	1				발형기대구연부, 발 형기대대각
2	수혈 식석 곽묘	월산 A49 호		●		하 1			3	●			●	1	유 I 1/상 1창			평저병
2	횡형	월산		●		하			2	●			●	2	유 II 1/창,			B 卜개, 파배

		식식 실분	B9호 1차				1										유 II 2/창		
	1	적식 목과 묘	방내 27B 호	●			하 1			2	●				●	1	유 I 1/2 공, 유 I 2/ 2창·2공, 유 II 2/창	대부각배대, 직구호 IA	
	2	적식 목과 묘	방내 31호		●		하 1			2	●				●	2	유 I 1/상 1창	파배, 일단투창고배	
	2				●		하 1			2	●				●	3	유 I 1/상 1창·2공· 상1공, 유 I 2/상1 창, 유 I 3/ 상1창, 유 II 1/창	장각고배1·2, B 卜개, 부 가 구 연 장 경 호 A·B, 합 (그 반 원 점)+ set C 투공 1 개 (그 삼+ 그 반 원 점), 연결 유 개 식 발, 배	
	2	적식 목과 묘	방내 46호					하 1		2	●				●	1			
	2	황구 식식 과묘	신원 6호 1차?		●		하 1			2	●				●	3	유 I 2/ 상 1창	A·B 卜개, 부 가 구 연 장 경 호 A	
2 -1 단 계	2?	석과 묘	방내 64호	-	-	-	-	-	-	-	●				●	1		파배, E 卜개, 평저병	
	2	황구 식식 과묘	월산 B16 호 2차?		●		하 1			2	●				●	1	유 I 1/ 상 1창, 유 I 2/ 상 1창, 유 II 1/창, 유 II 2/창	직구호 IA, 부 가 구 연 장 경 호 B	
	3						하 1			2	●				●	1			
	2	황혈 식식 실분	물천 C1- 15호		●		하 1			3	●				●	2	유 I 1/ 상 1창, 유 I 2 상 1창	부 가 구 연 장 경 호 A·B, 직구호 IA, 평 저 병, 합+ 절 두 원 추 형 1 개, 장 군	
	2	황혈 식식 실분 및 제의 유구	물천 C1- 5호 2차		●		하 1		2	3	●				●	2		유 I 1/ 상 1창, 유 I 2 상 1창	부 가 구 연 장 경 호 A·B, 직구호 IA, 평 저 병, 합+ 절 두 원 추 형 1 개, 장 군
	3						하 1		상 1	2, 3	●				●	2		E 卜·F 1 개, 평저병 1차: 장각고배 1 (집 선), C (투공) 卜개 (사 격자) 3차: 유 개 식 단 각 고 배 배 신 부, 대 부 완 Aa+ D1 개 (그 반 원 점)	
	2	황혈 식식 실분	방내 18호 2차?		●		하 1			1	●				●	1	유 II 3/무	배	
	3	석과 묘	방내 19호 2차?			●		2		4	●				●	1		부 가 구 연 장 경 호 B	
	3	황혈 식식 실분	방내 12호 1차			●		하 1			3		●		●	1	유 II 3/공	F1 개, 배, 평저병	
	3	황구 식식 과묘	신원 6호 2차?			●		2			3	●			●	1	유 I 4/무		
3	황혈 식식 실분	물천 C2- 12호 2차?			●		상 1			3	●			-	-	1	유 II 3/공, 유 II 4권/ 무	배+ E 卜 1차: 대부호(직구호 IA?) 3차?: 대부 유 개 식 발 (그 삼+ 이 중 원)+ F1 개, 대부 완 Ab+ D1 개	

2 -2 단 계	3	석곽 묘	방내 53호			●			상 1		2		●		●	1	대부완Ab, 배, 부가 구연장경호B	
	3	횡구 석식 곽묘	신원 4호 2차?			●			상 1		2	●			●	1	유 II 4 권· 편·내/무	set-C1入개(그삼+ 그반원점)
	3?	석곽 묘	물천 C1- 9호	-	-	-	-	-	-	-	-	●			●	1	유 II 4 권/ 무	대부완Ab+ F1入 개, F3개(이중원) 배+ D1入개(그삼+ 적반원점), 양이부용 + F1入개(이중원)
	3	횡혈 석식 실분	물천 C2- 9호 2차?			●			2?		3			3耳	●	1		대부완Ab+ D1入, 평 지병, G1入개(국화+ 이중원), 삼족토기
	3	횡혈 석식 실분	방내 36호 1차?			●			상 1		3				●	1	유 I 3/상 1공	2차?:대부용(적삼+ 수적), 소형G1-2·3 入개(적삼+ 수적, 수 적+ 적원점), 직구호 II B, 연화문수막새, 단판타날평기와
	4	횡혈 석식 실분	방내 16호 2차			●					●	-	●			●	1	유 II 4 권/ 무
4	횡혈 석식 실분	방내 30호 3차			●					●	-	●			●	2	유 I 3/2 공, 유 I 4/ 무	대부완B(적원점)+ E 卜개(적삼+ 적반 원점), 대부병(수적 + 적반원점), 파수부 용
4	횡혈 석식 실분	물천 C2- 9호 3차?			●					●	-			●	●	1	유 I 4/무	대부완Ab+ G2入개 (이중원+ 수적+ 원), 배(무, 이중반원+ 수 적)

표 17. 경주지역 고분출토 유개식 I 단각고배 순서배열표

단 계	형식	속성 묘제 및 유구명		대각단 형태			투장 (투공) 단수			투 장 (투 공 개 수)	대각 윗지름 (기준 5cm)		뚜껑 받이터		개 체 수	뚜껑			단각고배	공반유물 표지유물
				외 반 형	상 향 돌 출 형	권 형	투 장	투 공	무		狹	廣	미 약	발 달		드 림 부	꼭 지	문 양		
1	적석 목곽 묘	방내 27A 호	●				2			4	●		●		1	卜, C 투장, 그삼+ 그 반원점		무1/2창	장각고배 1·2·A·B·C (투공) 卜개, 소형F1 入개, 연질유개식발, 양이부용	
1	석곽 묘	월성 가13 -1호	●				2			3	●		-	-	1	-		무1/2창	장각고배 2, 개배 A, 연질유개식발	
1	적석 목곽 묘	월성 다1 호	●				2			4	●		●		2	卜, C투공, 그삼+ 그반원점			장각고배 2	

1 단 계	1	횡구 식석 곽묘	월산 A91 호	●			2			3	●		●	1	卜,B,무		장각고배2,일단투 창고배,직구호 I A	
	1	석곽 묘	월성 가18 호	●			2			4	●		●	1	卜,C투공, 그삼+ 그반원점	무 2 / 하 1 창·상1창	장각고배2,일단투 창고배,연절유개식 발,부가구연장경호 A	
	1	적석 목곽 묘	방내 22호	●			상 1			3, 4	●		●	3	卜,C, 그삼+ 그 반원점		장각고배2,부가구 연장경호A	
	1	석곽 묘	월성 다10 호	●			상 1			3	●		●	1	-		장각고배2	
	1	횡구 식석 곽묘	신원 3호	●			상 1			3	●		●	1	-	유 II 1/무	장각고배2, 부가구 연장경호A	
	1	석곽 묘	방내 19호	●			2			3	●			1	卜,C, 그삼+ 그 반원점		장각고배2,일단투 창고배,연절유개식 발	
	1			1차?	●			상 1			3	●		●	2	卜,B,무		
	1	수혈 식석 곽묘	화곡 40호	●			2			3	●		●	4	卜,C·D, 그반원점			
	2				●			상 1			3	●	-	-	1	-		
	2	적석 목곽 묘	월성 가1 호		●			2			4	●		●	1	卜,C투공, 그삼	무1/2창	장각고배1·2,A·C 卜 개,연절유개식발,대 부완Aa,대부직구호 I A, 부가구연장경 호A
	1	석곽 묘	월성 나6 호	●			상 1			3	●		●	1	卜,A·B, 무	무 1/2 창· 하 1 창, 무 2/하1창	장각고배2,연절유 개식발	
	1	적석 목곽 묘	방내 48호	●			상 1			2	●		●	1	卜,A·B,무	무1/하1창	장각고배2,부가구 연장경호A(그삼+ 그반원점), 직구 호 I A	
	2	석곽 묘	물천 C1- 23호		●			2		3	●		●	2	卜,C투공, 그반원점		연절유개식발	
	1	수혈 식석 곽묘	월산 B3호	●			상 1			3	●		●	2	卜,B·C,무	무 1 / 하 1 창, 무2/하 1창		
	2				●			상 1			3	●		●				5
	1	횡구 식석 곽묘	신원 2호	●			상 1			2, 3	●		●	2	卜,A·C,무	유 II 2/창	부가구연장경호A	
	2			1차?	●			상 1			3	●		●	2			卜,B,무
	1	횡구 식석 곽묘	월산 A80 호	●			상 1			2	●		●	1	卜,B,무	유 II 2/무	장각고배2,파배	
	2	적석 목곽 묘	방내 20호		●			2		3	●			1	卜,C, 그반원점	무1/하1창	장각고배2,A 卜개	
	2	수혈 식석 곽묘	인왕 2호		●			2		3	●			1	-	무2/2창	파배	
1	수혈 식석 곽묘	월산 A49 호	●			상 1			3, 4	●		●	3	卜,B·C,무	무2/하1창	평지병		
1	적석 목곽 묘	방내	●			상			3	●		●	4	卜,C,	무2/하1창	파배,일단투창고배		

	목표	31호				1					!		그삼+ 그 반원점			
1	횡 식 실 분	방내 50호 1차	●			상 1		4		●		●	1	卜, C, 그삼+ 그 반원점		
1	석 목 표	방내 51호	●			상 1		3	●		●		2	卜,A,B,무		파배,직구호 I A
2				●		상 1		3	●	●	●		3			
1	적 목 표	방내 21A 호	●			상 1		3	●		●	●	2			
1?	부 표		-	-	-	상 1?		-	●		●		1	卜,C,무	무1/2공	
2				●		상 1		3	●		●		2			
1	적 목 표	방내 46호	●			상 1		3, 4	●	●	●		2	卜·1入, C,그삼+ 그반원점	무2/하1장 ,무2/하1 공,유II1/ 장	장각고배1·2,B卜 개,부가구연장경호 A·B,합(그반원 점)+ setC투공1入 개(그삼+ 그반원 점),연질유개식발, 배
1			●			2		3	●		●		2			
1			●			상 1		3, 4	●		●		3			
2				●		상 1		2	●			●	2			
2	석 목 표	방내 60호 1차?	●			상 1		3	●		●		1	卜,C,무		장각고배1 2차?:부가구연장경 호B
2	수 협 식 목 표	월산 B2호	●			상 1		3	●		●		1	卜,B,무	무1/하1장	파배,직구호 I A(그 반원점)
2	횡 구 식 목 표	신원 6호 1차?	●			상 1		3	●		●	●	2	卜,C,무	무2/하1장	A·B卜개,부가구연 장경호A
1	적 목 표	방내 27B 호	●			2		3	●		●		3	卜,C, 그반원점, 그삼+ 그 반원점	무1/하1장 ,무2/하1 공,유II2/ 장	대부각배대,직구호 I A
2				●		2		3	●		●	●	4			
2				●		2		3	●		●	●	4			
2	횡 구 식 목 표	신원 1호	●			상 1		2	●		●		1	卜,C,무	유II2/장	
1	횡 구 식 목 표	월산 B16 호 2차?	●			상 1		2	●		●		3	卜,C,무	무1/2장· 하1장,무 2/하1장, 무3/하1 장,유II1/ 장,유II2/ 장	직구호 I A,부가구 연장경호B
2				●		상 1		2, 3	●			●	3	卜,B·C,무		
2	횡 구 식 목 표	신원 7호 1차	●			상 1		3	●		●		1	卜,C,무	유II1/무	부가구연장경호A
2	석 목 표	물천 C1- 12호	●			2		3	●		●		1	卜,C투공, 그반원점		장각고배2,파배,부 가구연장경호A·B
1	횡 구 식 실 분	물천 C1- 15호	●			상 1		4	●		●		4	卜,C,점열, (그삼)+ 그 반원점	무2/하1장	부가구연장경호 A·B,직구호 I A,평 저병,합+ 절두원추 형1入개,장군
2				●		상 1		3	●			●	3			
2	횡 구 식 실 분	방내 18호 1차?	●			2		3	●		●		2	-	유II1/무· 유II2/무	파배,대부배(창), (합set)F1入개

1	적석 목표 부과	방내 23호	●			상 1		3	●		●	1	卜,B·C,무	유 II 2/창	부가구연장경호A	
2				●		2		3	●		●	1	卜,C, 그삼+ 그 반원점			
3				●		상 1		3	●		●	3	卜,B·C,무			
1	적석 목표 부과	방내 29호	●			상 1		3	●		●	1	卜,C, 그삼원점, 그삼+ 그 반원점	유 II 1/창, 유 II 2/창	B 卜개, 파배, 부가구 연장경호A·B, 평저 병	
1?			-	-	-	상 1?		-	●		●	1				
2				●		상 1		3	●		●	1				
3			●	2		4	●			●	1					
1	적석 목표 부과	방내 26호	●			상 1		3	●		●	5	卜,C, 그삼+ 그 반원점	유 II 1/창, 유 II 2/창	부가구연장경호A	
2				●		상 1		3	●		●	3	卜,C, 그삼+ 그 반원점			
3					●	2		3	●		●	1	卜,C, 그삼+ 그 반원점			
1	수혈 식석 과도	월산 A81 호	●			상 1		3	●		●	1	卜,C,무	유 II 1/창, 유 II 2/창		
3					●	상 1		3	●		●	1				
1	횡혈 식석 실분 부과 1호	방내 39호 1차?	●			상 1		3	●		●	2	-	유 II 1/창	현실 내부:합(set 병형꼭지入자형개) 보문리완총보다 선 행 A·C·E 卜개(그삼+ 그반원점), 부가구 연장경호A	
2				●		상 1		2, 3	●		●	●	3			卜,C, 그삼+ 그 반원점
2	수혈 식석 과도 ? (횡 식?)	월산 B12 호 1차?		●		상 1		3	●		●	1	卜,E,무	유 II 1/창	파배	
1	적석 목표 부과	방내 28호	●			상 1		2, 3	●		●	2	卜,B·C, 무,그삼+ 그반원점	유 II 2/창	장각고배2,C 卜개 (사격자), 부가구연 장경호A·B, 합(그반 원점)+ setC1 入개 (그삼+ 그반원점) 주관:장각고배1(사 격자)+ C 卜(투창, 투 공)개(사격자)	
2				●		상 1		2, 3	●		●	●				2
3					●		상 1		4	●		●				1
2	식석 분	방내 44호		●		상 1		3	●			1	卜,B·C,무	유 II 3/무	대부완Ab+ C1 入 개,배,평저병,장군	
3					●	상 1		3		●	●	1				
1	수혈 식석 과도 1호	월산 A12 호	●			상 1		3	●		●	1	卜,D!,무			
3	횡구 식석 2호	신원 2호			●	상 1		2	●		●	1	-			

	2	목 표	24호	●							2, 3	●	●	●	3	卜,C,D,무	하1 창	
	1	수 혈 식 표	월산 B14 호	●							3	●	●	●	1	-	무1/ 하1 창,무 2/하 1창	양 이 부 용 + C 卜개(그 삼+ 그반원 점)
	2	황 구 식 표	월산 A80 호	●							2	●	●	●	2	卜,B,무	유 I 1/상 1창	장각고배2, 파배
	1	황 구 식 표 실 본	방내 30호 1차	●							3	●	●	●	1	卜,E,무	무1/ 하1 창	부가구연장 경호A
	2	황 구 식 표	신원 2호 1차?	●							2	●	●	●	3	卜,B,C,무	유 I 1/상 1창, 유 I 2/상 1창	부가구연장 경호A
	2	적 석 목 표	방내 27B 호	●							3	●	●	●	1	卜,E, 그반원점	무1/ 하1 창,무 2/하 1공, 유 I 1/2 공,유 I 2/ 2창· 2공	대 부 각 배 대, 직구호 IA
	1	적 석 목 표	방내 46호	●							3	●	●	●	2	卜,E,무	무2/ 하1 창,무 2/하 1공, 유 I 1/상 1창· 2공· 상1 공,유 I 2/ 상1 창	장 각 고 배 1·2,B 卜개, 부가구연장 경호A·B,합 (그 반 원 점)+ setC 투공1개 (그삼+ 그 반원점),연 결 유 개 식 발,배
	1	황 구 식 표	월산 A92 호	●							-	●	●	●	3	卜,B,무		부가구연장 경호A
	2	황 구 식 표	월산 A92 호	●							3	●	●	●	1			파배(제외 유구)
	1	황 구 식 표	신원 3호	●							-	●	●	●	1	卜,E,무	유 I 1/상 1창	장각고배2, 부가구연장 경호A
	1	황 구 식 표 실 본	월산 B9호 1차	●							3	●	●	●	3	卜,C,무	무2/ 하1 창	B 卜개,파배
	2	황 구 식 표 실 본	월산 B9호 1차	●							3	●	●	●	1	-		
2 -1 단 계	1	황 구 식 표	월산 B16 호 2차?	●							2	●	●	●	1	卜,C,무	무1/ 2창· 하1 창,유 I 1/	직구호 IA, 부가구연장 경호B

2 -2 단 계	3	횡 혈 식 석 실 본	물 천 C2- 12호 2차?	●	●	3	●	●	●	1	-	무?3 /상1 공	入 개 (그 반 원점)				
				●	●	-	●	●	-	-	1		-	배+E卜 1차:대부호 (직 구 호 I A?) 3차?: 대부 유 개 식 발 (그 삼 + 이 중원)+ F1 入 개, 대부 완 Ab+ D1 入 개			
				4	횡 구 식 석 곽 표	신 원 7호 2차	●	●	●	-	●	●	1↓	!	●	2, 2	卜,E,무
	3	횡 혈 식 석 실 본	방 내 11호 2차?	●	●	4	●	●	●	●	1	1入?, F투공, 그삼+ 이 중원		대부병			
				3	석 곽 표	물 천 C1- 11호	●	●	-	●	●	●	1	卜,E, 적삼+ 이중원		대부유개식 발(적삼+ 이중원)+D 卜(적삼+ 적반원점)	
				3	4	횡 혈 식 석 실 본	방 내 3호	●	●	●	-	●	●	1	1 1	유 I 4/무	
				4				●	●	●	-	●	●	●			
				3	4	석 실 본	물 천 C1- 4호	●	●	-	●	●	●	1	卜,E,大		1入개(그삼 + 적 반 원 점),G3入개 (적삼+ 이 중원),대부 장경호(적 삼+ 이 중 원)
				4				●	●	-	●	●	1↓	●	3		
	4	4	횡 혈 식 석 실 본	방 내 16호 2차	●	●	-	●	●	●	1↓	●	1	卜,E,무	무4/ 무	직구호 IB 1차:C투공 卜 개 (그삼 + 그 반 원 점),대부완 Aa,대부배 (창),평저병	
	4				●	●	-	●	●	●	1↓	●	1	卜,D, 적삼+ 적 반원점			직구호 IB (그삼+ 이 중원)
	4				석 곽 표	물 천 C1- 9호	●	●	-	●	●	●	1↓	●	1	卜,E,무	무3? (대각 결실)
4	●	●	-	●	●	1↓	●	1	卜,E,무								

A Study on Short mounted Cups excavated from Tombs in the Gyeongju Area

Song, Sang Woo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Won)

(Abstract)

As representative of the latter style pottery in Sil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short mounted cups(短脚高杯, goblets) have been studied that were made in Gyeongju during the sixth century. This was when the tomb system changed from the wooden chamber tomb with a stone mound(積石木槨墳) into a caved stone chamber tomb(橫穴式石室墳). Cups found in each tomb system were analyzed and compared. Also, near the time the cups were created, Hwangryongsa temple(皇龍寺) was established. It's quite easy to recognize these short mounted cups as a remarkable relic of a certain period of time since they were widely found in the entire region of the Silla dynasty up to seventh century after.

In order to clarify the culture during the time of Silla, it's prudent to examine the design of short mounted cups from Gyeongju, which was the capital of the Silla dynasty. Therefore,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he typological analysis of short mounted cups excavated from tombs in the Gyeongju area.

The purpose of this master's thesis is to understand the transition of short mounted cups and to place it in chronological order. First, short mounted cups excavated from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a stone mound were analyzed. Second, short mounted cups from caved stone chamber tombs were also analyzed. The two results were then compared against each other.

While focusing on the form of the end of foot of the cups in established studies, a large opening called 'Toochang'(透窓) and a small opening named 'Toogong'(透孔) were not definitively examined in the past, but are clearly defined in this thesis. Moreover, it appears that the most effective ways to see the changes in time order of short mounted cups during the Silla tomb style transition are the form of

the end of foot of the cups and the combinations of the small and large openings in the foot of the cups.

According to the existing theories, a short mounted cup only refers to very short footed mounted cups with a prominent cover-supporting rim(蓋收部). In this study, during sixth and seventh century mounted cups which have equal proportions, as well as ones which have shorter foot part than cup part were classified as a sub-category of short mounted cups. Short mounted cups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patterns; that is, (a) non cover-supporting rim forms, (b) cover-supporting rim forms 1, and (c) cover-supporting rim forms 2. (a) and (b) can be differentiated by the existence of cover-supporting rims, while (b) and (c) can be distinguished by the projecting lines of the foot parts. Each pattern (a, b, and c) was then subclassified into 4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the end of foot and the combinations with large openings or small openings. The coexistence and time order of these artifacts was confirmed through analyzing other relics and by seriation method. Lastly, three different stages of short mounted cups were defined based on chronological order from the early sixth century to the late seventh century. The features of each of these three stages were also examined.

It was confirmed that short mounted cups were made during the time from extinctive period of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a stone mound until the period of prosperity marked by caved stone chamber tombs and pottery with stamped ornamental designs(印花紋土器). Unlike established dichotomous thinking that long footed mounted cups with two-tiered arrangement of a large opening around the foot (二段透窓長脚高杯) are synonymous with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and short mounted cups are synonymous with caved stone chamber tombs, short mounted cups were not only found in newly excavated caved stone chamber tombs but they were also present in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